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

國史教科書(고등학교)에 서술된

중국 관계 기사 분석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곽명숙

광명숙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4년 8월

주 심 문학 박사 박 원 용 (인)



위 원 문학 박사 신 명 호



위 원 역사학박사 조 세 현



목 차

I. 서론	1
II. 국사 교과서의 외국사 및 중국 관계 기사 기술 경향과 기초 통계	7
1. 국사 교과서의 외국사 및 중국 관계 기사 기술 경향	7
2. 중국 관계 기사의 기초 통계	12
가. 영토 관련 기사 기초 통계	12
나. 사건과 인물 관련 기사 기초 통계	16
III. 중국 관계 기사에서 주요 용어와 구성상의 문제점	19
1. 주요 용어 사용에서의 문제점	19
가. '중국'이라는 명칭	19
나. 왕조명·지역명 표기	25
2. 교과서 구성상의 문제점	30
가. 시대별 불균형	31
나. 주제 영역별 불균형	36
IV. 중국 관계 기사에서 내용상의 문제점	39
1. 정치·외교 분야	39
가. 배경 설명의 부족	39
나. 대외 항쟁사 위주의 기술	46
2. 문화·경제 분야	53
가. 중국 중심의 일방적인 교류사 서술	53
나. 문화·경제 교류의 부분 누락	63
V. 결론	68
·참고문헌	71
·부록 : 중국 관계 기사 일람표	76

표 목차

〈표 1〉	영토 관련 기사	12
〈표 2〉	영토 관련 기사 기초 통계	15
〈표 3〉	사건 관련 기사의 시대별·영역별 기초 통계	16
〈표 4〉	중국 관계 기사에 나타난 인물	17
〈표 5〉	중국 관계 기사에 나타난 인물의 성향 분석	18
〈표 6〉	지역명 표기의 예	27
〈표 7〉	국사 교과서의 중국 관계 주요 사건	31
〈표 8〉	임오군란에 대한 제6·7차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기술 비교 ..	34
〈표 9〉	정치사 서술 분석	47
〈표 10〉	문화사 서술 분석	53
〈표 11〉	국사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는 중국 문화의 수용 사례 ...	54

The Analysis of the Descriptions Related to China in the Highschool Textbook of Korean History

Myong-Suk Kwak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how history textbook revised due to the 7th high school curriculum describes the Korea-China relationship. This study also points out its problem, and suggests some alternatives for better history educa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111 articles describing the Korea-China relationship in the textbook, there are two problems: One is concerning with the terms and structure, the other contents. First, the 7th textbook calls China by its state name or its dynastic name without any clear definition. Even its dynastic name or regional name is not coherent. Thus this study suggests the history textbook have consistent terms with a clear definition.

Second, the 7th textbook has structural imbalance in periodization and discription. It roughly describes the events in the modern and contemporary times comparing with those in the ancient and medieval times. In addition, the field of political history is presented quite systematically, but that of cultural history in fragments. Therefore the ill-balanced description should be revised.

The problems in contents are presented in politics and foreign policy and in culture and economy as follows:

First, the 7th textbook hardly describes the progress of Korean history or the formation of its culture in the light of the relationship with neighboring countries concerning with politics and foreign policies. Furthermore, even

though it has been mostly peaceful relationship shared by Korea and China, the textbook seems to overemphasize the history of resistance to establish national identity, which has some probabilities of students to a negative perception of history. Therefore, there should be not only the events of invasion and defense but also those of cooperation and peaceful interchange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discription of textbooks.

Second, the viewpoint of the textbook relating to the cultural and economical interchange is overwhelmingly on the side of China. The interchange should be mutual, and the textbook misunderstands the nature of interchange by emphasizing one-sidedly that Korea introduced the culture imported from China to Japan. There should be multi-dimensional description on cultural history. The textbook also lacks description on the cultural and economical interchange with northern nomadic peoples and the introduction of advanced culture from Han Commander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textbook should have more balanced perspective on the history of culture and economy by complementing these problems.

I. 서론

국사 교과서에 대한 관심은 한일 교과서 파동이나 한중 고구려사(高句麗史) 귀속 문제 때문에 더욱 증가하고 있다. 우선 2001년의 한일 교과서 파동을 들 수 있다. 2001년 일본에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새로운 역사 교과서(新しい歴史教科書)》(扶桑社, 2001. 6. 10)가 검정(檢定)을 통과한 이후, 이 사건은 양국간의 외교 문제화되었으며,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로 문제가 확대되었다. 이에 대항하여 우리 나라의 경우 ‘역사 교과서 바로잡기 운동 본부’가 결성되어 이 문제에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가운데 역사 교과서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그 논의는 주로 한일 관계사 문제와 양국 교과서 비교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¹⁾ 이러한 역사 논쟁 중 일본의 교과서 왜곡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정 교과서(國定教科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것은 또 다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2003년에는 한중 고구려사 역사 전쟁이라 할 수 있는 ‘동북공정(東北工程)’ 문제가 발생하였다. 최근 중국과의 고구려사 관련 논쟁이 역사학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 이르기까지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양국의 정치·외교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첨예화되고 있는 문제이다.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 의도는 이미 근래의 일이 아니며, 발해사(渤海史)의 경우는 이미 중국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다. 이른바 동북공정 프로젝트로 명명되는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의도를 우리는 지금에서야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에 대한 대응을 펼치기에 이르렀다.

1) 한일 교과서 문제에 대한 주요 저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당대비평 특별호, 《기억과 역사의 투쟁》, 삼인, 2002;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역사문제연구소, 《화해와 반성을 위한 동아시아 역사인식》, 역사비평사, 2002; 한국역사교과서연구회 편,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과 일본》, 혜안, 2002 등.

이러한 상황은 비단 고구려사 문제만이 아니라 나아가 고조선사(古朝鮮史)의 문제도 포괄할 여지가 있어, 중국과의 역사 분쟁이 앞으로 더욱 심각하게 발전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과의 경우도 그러하지만, 중국과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한국이나 중국 모두 자민족 중심의 역사 인식이 팽배해 있어서 상호 이해와 협력이 바탕이 되는 역사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우리 나라 국사 교과서에서는 중국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국사 교과서에 관한 연구는 역사교육과 관련된 다른 영역에 비해 많이 이루어져 왔다. 해방 직후의 검정 교과서 시기부터 시작하여 1974년 국정 교과서로 이행한 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국사 교과서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다.²⁾ 이 중에서도 국사 교과서에 나타난 외국 관련 내용을 분석한 논문 가운데에는 일본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분석한 것이 가장 많다.³⁾

일본과 역사 교과서 분쟁이 먼저 시작되었으므로 자연스럽게 한일 역사교과서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중국과 관련해서는 관심이 적었으며, 연구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연구의 수준도 피상적인 논의에 머물고 있으며, 전통 시대는 물론 근현대시기까지의 중국과의 대외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앞으로 많은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⁴⁾

국사 교과서의 중국 관계 내용에 대한 연구 논문은 몇 편 있는데, 대체

2) 국사 교과서의 연구 현황에 관련된 논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김한중, <국사 교과서 연구의 성과와 과제>, 《경상사학》 7·8, 1992; <국사 교과서 연구의 최근 동향>, 《사회과학교육연구》 5, 2002.

3) 한일 교과서 문제에 대한 주요 연구자로는 정재정을 들 수 있다. 정재정,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역사교과서와 한국관련 서술의 문제점>, 《한국사연구회》, 2001;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사관의 특징 - 후소야 간행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6, 2001;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와 그 전망>, 《한국사연구》 116, 2002 등.

4) 김한중, <국사 교과서 연구의 최근 동향>, pp.70-71.

로 시기적으로 오래 되었다.⁵⁾ 시대별로 연구동향을 간단히 살펴보면, 1980년대에는 윤세철(尹世哲)이 처음으로 국사 교과서의 중국 관계 내용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논문을 썼으나 구체적인 분석이라기보다는 연구를 위한 기본 원칙만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그리고 박정수(朴丁秀)는 중국사에 대한 재인식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전의 이론적인 논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김구진(金九鎭)은 국사 교과서에 있어서 만주사(滿洲史) 인식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논문은 처음으로 북방 관계 내용에 관심을 가진 점은 주목할 만하지만, 교과서의 세부적인 서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사공인헌(司空仁憲)은 북방관계 기사의 연구가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한족 관계 서술 내용의 검토에서 문제점을 찾아내어, 개선방안을 일부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사 교과서의 북방 관계에 주목한 논문들은 자민족 중심주의적인 경향이 강하다.

1990년대에는 우선 박준수(朴浚洙)와 송진숙(宋珍淑)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박준수는 한국사의 세계사적 이해라는 측면에서 동아시아 세계라는 지역사적 관점을 도입하였다는 것이 주목된다. 그리고 송진숙은 양국 교과서를 비교하여 한중 관계 문제를 고찰하고 있어, 이전의 연구보다는 인식이나 방법 면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상의 논문들은 국사 교과서의 중국 관계 내용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주목한 글은 아니다. 여기에

5) 국사 교과서의 중국 관계 내용에 대한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윤세철, <중학교 국사교과서에 있어 중국사 서술문제>, 《역사교육》 37:38, 1985; 김구진, <중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있어서 북방관계서술>, 《역사교육》 37:38, 1985; 박정수, <중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서술된 중국 관련 내용의 조사분석>, 경북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사공인헌, <현행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분석적 고찰-한족, 북방관계 서술내용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박준수, <국사교육에 있어서 중국 관계의 인식>, 《춘천교대민족교육연구》 7, 1991; 송진숙, <한·중 중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분석적 고찰-한·중 관련 서술내용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김광수, <한국 '국사' 교과서 교대부분의 중국 동북지방>, 《역사교육》 54, 1993; 이준희, <한국 '국사' 교과서 속의 근현대 연변지방-교과 국사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역사교육》 54, 1993.

서 더 심화시킨 논문도 없고, 단발성에 그치고 있다.

1993년에는 중국과의 수교 이후 '한·중 역사교육 국제 학술대회'에서 김광수(金光洙)와 이존희(李存熙)가 논문을 발표하였다. 먼저 김광수는 한국인에게 '만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중국의 동북(東北)지방에 주목하여, 그간의 이 지방에 대한 한국사적 이해를 교육적 측면에서 점검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고대시기에만 한정되어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이존희는 국사 교과서에 서술된 내용 중에서 만주지방은 우리의 국사 서술에 있어서 중요시되어야 할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반해 이 지역에 대한 희박한 지식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국사 교과서에서 그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도 지나치게 자국사 위주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1993년 이후에는 중국 관계 내용을 다룬 전문적인 논문을 찾아보기 힘들다. 무려 10여 년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⁶⁾ 그러나 최근 김한규(金翰奎)는 한중 관계사에 관한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종합하여, 한중 관계사를 전면적으로 고찰한 두 권의 단행본을 출간하였다.⁷⁾ 이러한 한중 관계에 관한 전문 서적이 출간되어 한중 관계사에 대한 접근이 더욱 용이해졌다. 게다가 요즘은 국사 교과서

6) 최근에는 전면적인 중국 관계 내용 분석은 아니지만, 류춘우의 논문이 있다. 류춘우는 선행 연구들에서 한국 교과서에서의 중국 관계 내용 분석과 중국 교과서에서의 한국 관계 내용 분석이 각각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소수의 관련 내용들을 추려내어 그 특징을 분석하는 연구가 아니라, 한중 교과서의 전반적인 대외관계 분석을 통해서 양국 교과서에 기술된 대외관계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 근대이전·근대·현대로 나누어 분량 분석과 서술 내용 분석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양국 국사 교과서 내의 대외관계 내용에 있어 주목해야 할 사항은 자기 민족이나 국가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게 하면서도 타민족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없애고, 서로 간에 이해를 바탕으로 공존 할 수 있도록 하는 서술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행한 전반적인 양국 교과서의 대외관계분석과 같은 전체적인 연구도 필요하지만, 국사 교과서의 중국 관계 내용에 관한 연구도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류춘우(柳春佑), 〈현행 한중 중학교 국사 교과서의 대외관계 비교분석〉, 안동대학교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7) 김한규, 《한중 관계사 I II》, 아르케, 1999.

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 젊은 학자들 사이에서 집단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그와 관련한 논문집도 출판되었다. 예를 들면 《화해와 반성을 위한 동아시아 역사인식》, 《기억과 역사의 투쟁》,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와 같은 논문집을 들 수 있다.⁸⁾

이 논문에서는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국사 교과서⁹⁾에 서술된 중국 관계 기사 분석을 심화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로 현행 7차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로 한정하여 집중 분석하고자 한다. 이 교과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2002학년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 사용하고 있는 책인데, 이전 교과서와 달라진 점이라면 우리의 역사상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분류하여 주제별로 서술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제7차 중학교 국사 교과서 및 제6차 중학교·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등을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비교하였다.

분석 방법은 국사 교과서의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중국 관계 기사 111건을 발췌하여 영토 관련 기사(18건)와 사건 관련 기사(93건)로 분류하였다. 중국 관계 기사를 발췌한 기준은 장소가 현재의 중국과 한국에 걸쳐 있거나, 시간적으로 중국과 한국에 동시에 관계되는 내용을 그 기준으로 하였다. 사건 관련 기사는 다시 시대별·영역별로 분류하여 통계를 내고

8) 최근 국사 교과서 문체를 다룬 주요 논문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역사문제연구소, 《화해와 반성을 위한 동아시아 역사인식》, 역사비평사, 2002; 당대비평 특별호, 《기억과 역사의 투쟁》, 삼인, 2002; 임지현·이성지 엮음,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 휴머니스트, 2004. 한국에서의 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의는 국정 교과서 체제가 학생들의 다양한 역사관 형성에 지장을 주며,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이해가 반영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동안 많은 개선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가 교과서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9) 2002학년도 1학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하여 국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중학교 교과서는 통사 중심으로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다루고 있으며, 고등학교 교과서는 분류사 중심으로 선사시대로부터 전근대까지 다루고 있는데, 모두 국정 교과서로 되어 있다. 한편 근현대부분은 선택과목으로 검인정 교과서로 되어 있다. 6차 교육과정과 달라진 점은 근현대부분이 선택과목으로 검인정 교과서가 되었다는 점과 고등학교 교과서가 분류사 중심으로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종이의 질이 좋아지고, 컬러 인쇄를 사용하고, 사진과 도판을 다양하게 활용하였다는 점이 돋보인다.

분석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아울러 사건 속에 포함된 인물을 발췌하여 그 성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II장에서는 중국 관계 기사의 기술 경향을 살펴보고, 기초 통계를 제시하였다. III장에서는 이 기초 통계를 토대로 분석하여, 중국 관계 기사에서 주요 용어와 구성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그리고 IV장에서는 중국 관계 기사에서 내용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따라서 필자는 현행 국사 교과서에 서술된 중국 관계 기사 분석을 통하여 교과서에 나타난 문제점을 짚어보고, 나름대로의 대안이나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Ⅱ. 국사 교과서의 외국사 및 중국 관계 기사 기술 경향과 기초 통계

1. 국사 교과서의 외국사 및 중국 관계 기사 기술 경향

국사 교과서는 해방 직후에 일제의 식민교육으로부터 벗어나 민족교육을 실시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1945년 진단학회에 의해 중등학교용 〈국사 교본(國史敎本)〉과 초등학교(5-6학년)용 교과서가 군정청과 문교부의 검인정을 거쳐 간행된 것이 효시이다. 해방 직후부터 1973년까지 검인정으로 발행되던 국사 교과서는 1974년부터 국정으로 발행되기 시작하여 1979년부터 형식상 1종으로 바뀌었다. 이는 제3차 교육과정(1974)의 시행과 더불어 교과서의 국정, 단일화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여기서 ‘국정(國定)’이란 모든 역사가 국가에 의해 해석 확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국사 교과서는 ‘조국 통일’과 ‘민족 번영’이란 키워드로 정리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1980년대 중반이후부터는 국사 교과서의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¹⁰⁾

그러므로 현재 국정으로 발행되고 있는 국사 교과서는 검인정으로 발행되고 있는 다른 교과서들과는 달리 국가 중심적이고, 민족주의적 색채가 짙다. 국사 교과서의 머리말에 따르면, ‘국사 교육은 민족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구실을 하며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과 능력을 길러 주는데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하고 있다.¹¹⁾ 따라서 이러한 국사 교육의 목표

10) 김한중, 〈국사 교과서 연구의 성과와 과제〉, 《경상사학》 7-8, 1992, pp.3-14 참고.

에 따라 서술되는 교과서는 민족주의적 내용을 담고 있을 수 밖에 없다. 자국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국사 교과서에서 자민족 중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는 어느 나라에서든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사 교과서에서 자국사와 민족사를 중심으로 내용을 서술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 하더라도, 올바른 국사 교과서의 서술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국사 교과서에서 지나치게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역사를 보는 균형 있는 시각을 길러주지 못하고, 자칫 자민족 우월주의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국사 교과서에 민족주의적 내용이 깊이 침투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처했던 역사적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역사 인식이 강조되어 팽배하게 되고, 오랫동안 우리의 역사 교육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일제시대로부터 그 뿌리를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식민 지배를 받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민족주의적 역사인식은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었다. 이후 현대에 와서 국사 교육을 강조하던 군사 정권 시기에도 여전히 민족주의적 역사인식은 강조되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산업화와 근대화라는 국가적 목표를 위해 국민을 민족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결집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역사관이나 역사의식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인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가변적이므로 역사 인식의 문제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21세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지금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이전의 민족주의적 역사 인식에도 변화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제 사회는 국경과 영토 개념이 약화된 채 세계인 모두가 하나가 되어 전 세계를 역사의 무대로 하여 살아가고 있다.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11) 국사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7차)》, 부산, 2002, p.2.

상호 의존성과 협력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상호 이해의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국민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역사 교육 본래의 취지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여기에만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¹²⁾

국사 교과서의 서문에서도 '일부 단원의 앞부분에는 우리 민족의 활동상을 민족사에 머물지 않고 세계사와 상호 관련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세계사의 흐름을 간략히 언급하였다. 이는 국사와 세계사의 교육 목표를 서로 연계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이다.'라고 하면서, 민족사에 머물지 않는 세계사와의 상호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사 교과서에서의 외국사 기술은 세계사 교육이 선택으로 전환된 현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사 교육의 세계사적 이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현행 국사 교과서에 나타나는 외국사 기술 분량은 크게 부족하고, 그것도 중국과 일본에 주로 치중되어 있다. 러시아, 프랑스, 미국 등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는 지극히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한 나라의 역사는 단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관련시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대사 부분에서의 외국사 기술은 거의가 중국과 관련된 기술이 많다. 왜냐하면 중국은 인접국가로서 고대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결코 국사 교과서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고대의 동아시아 지역이라는 한정된 역사의 무대를 대상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만 같은 동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일본과 관련된 내용은 고대사 부분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12) 역사교과서연구회·역사교육연구회 편, 《역사교과서속의 한국과 일본》, 해안, 2000, p.18.

중세사 부분에서는 외국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전의 고대사 부분에 비해서는 좀 더 늘어나고, 그 대상국도 조금 더 확대된다. 이 시기에는 고려(高麗)시대에 송(宋)과의 무역, 아라비아의 상인들에 관한 기술이 조금 있으며, 특히 대외 관계에서는 거란(契丹)과 여진(女眞)에 관련된 항쟁사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이 부분에서는 중국보다 오히려 북방민족과 관련된 서술 내용이 더 많다. 조선시대에는 정치사 영역에서 청(淸)과의 관계라든가 일본(日本)과의 관계를 거의 대등한 분량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문화사 영역에서는 중국으로부터 문화를 수입한 내용을 많이 서술하고 있지만,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문화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는 편향된 서술 양식이 드러난다.

이처럼 고대사와 중세사 부분에서는 중국이나 북방 민족과 관련된 기술이 주를 이룬다. 그런데 갑자기 근현대에 들어오면, 단원 개관 부분에서도 16세기 이후 유럽의 근대적인 발전을 들면서, 이전의 중국 중심으로 세계사를 설명하고 있는 방식을 확 바꾸어 유럽의 역사를 먼저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전근대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중국에 관련된 서술 내용은 현저하게 축소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일부 단원의 앞부분에서는 세계사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본문 속에서 우리 역사와 관련시켜 서술하는 경우는 드물다.

근현대사 부분에서는 일본과 관련된 서술이 대부분이다. 일제의 식민지배의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정치나 경제 부분에서 일제의 식민통치, 경제활동에서의 일제의 이권 침탈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이 시기에 중국과 관련된 내용은 임시정부를 중국 상해(上海)에 설치한 것 같은 독립운동사에 대한 내용 정도에 불과하다.

해방이후의 우리 역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나라는 미국이나 소련이다. 하지만 그 나라들이 우리 나라에 미친 영향에 비해서 국사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별로 없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한국의 현대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국사 교과서에서는 서술이 별로 없다.

이렇듯, 국사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는 외국사와 관련된 내용은 시대에 따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대상국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실제로 관련이 많았다 하더라도 고루 서술되지는 않고 있으며,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위에서 간략히 언급하였는데 특히 외국사 가운데서도 중국과 관계된 내용의 기술 경향을 살펴보자. 중국은 우리 나라와 인접국가로서 전근대 사회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러한 관계는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요컨대 한중관계가 동아시아 세계에서 점하는 위치는 긴밀하고 특수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에 대한 국사 교과서에서의 구체적인 묘사는 우리 나라 역사 본연의 모습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중국과 관계된 내용의 기술 경향은 고대나 중세에 많이 편중되어 있고, 정치사 영역에서 외교관계와 항쟁사를 설명할 때, 주로 국사와 관련지어 서술하고 있다. 경제사 영역에서는 무역사를 서술할 때, 중국에서 수입된 수입품과 수출품에 관한 내용 위주로 서술되고 있다. 사회사 영역에서는 거의 중국과 관계된 내용이 거의 없는 편이다. 한군현 설치로 인한 사회변화와 선진문화 수용, 몽고 침입이후의 사회변화와 같은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문화사 영역에서는 주로 중국에서 수입된 문화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한국문화의 중국 전파나 서양의 문물이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다. 우리 나라 역사와 관련을 짓지 않고 중국의 역사를 별도로 기술하지는 않고 있다.

2. 중국 관계 기사의 기초 통계

가. 영토 관련 기사 기초 통계

이 논문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111건의 중국 관계 기사 가운데, 현재의 중국과 한국의 영토와 관련된 기사를 발췌해 보면, 아래와 같이 18건 정도를 찾을 수 있다.

〈표 1〉 영토 관련 기사

시대	내 용
선사	우리 조상들은 대체로 중국 요령(랴오닝)성, 길림(지린)성을 포함하는 만주 지역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에 넓게 분포하여 살고 있었다. 우리나라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구석기 시대부터이며,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민족의 기틀이 이루어졌다.(p.21)
선사	청동기 시대의 유적은 중국의 요령성, 길림성 지방을 포함하는 만주 지역과 한반도에 걸쳐 널리 분포되어 있다.(p.29)
선사	이 시기의 대표적인 동검인 비파형 동검은 만주로부터 한반도 전역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다. 이와 같은 비파형 동검의 분포는 미송리식 토기 등과 함께 이 지역이 청동기 시대에 같은 문화권에 속하였음을 보여 준다.(p.29)
선사	고조선은 요령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점차 인접한 족장 사회들을 통합하면서 한반도까지 발전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비파형 동검과 고인들의 출토 분포로써 알 수 있다.(p.34)
선사	고조선은 요령 지방과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이룩하면서 발전하였다. 기원전 3세기경에는 부왕, 준왕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하였으며, 그 밑에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도 두었다. 또, 요서 지방을 경계로 하여 연나라와 대립할 만큼 강성하였다.(p.35)
선사	부여는 만주 길림시 일대를 중심으로 송화(송화)강 유역의 평야 지대를

	중심으로 성장하였다.(p.38)
선사	고구려는 압록강의 지류인 동가강 유역의 졸본(환인) 지방에 자리 잡았다.(p.39)
선사	고구려는 건국 초기부터 주변의 소국들을 정복하고 평야 지대로 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압록강 가의 국내성(통구)으로 옮겨 5부족 연맹을 토대로 발전하였다. 그 후 활발한 정복 전쟁으로 한의 군현을 공략하여 요동 지방으로 진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쪽으로는 부진고원을 넘어 옥저를 정복하여 공물을 받았다.(p.39)
고대	졸본성에서 국내성으로 도읍을 옮긴 고구려는 1세기 후반 태조왕 때에 이르러 정복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p.49)
고대	정복활동을 통하여 축적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백제는 수군을 정비하여 중국의 요서 지방으로 진출하였고, 이어서 산동 지방과 일본의 규슈 지방에까지 진출하는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벌였다.(p.52)
고대	고구려는 만주와 한반도에 걸친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정치 제도를 완비한 대제국을 형성하여 중국과 대등한 지위에서 힘을 겨루게 되었다.(p.54)
고대	고구려 멸망 이후 대동강 이북과 요동 지방의 고구려 땅은 당의 안동 도호부가 지배하고 있었다. 고구려 유민들은 요동 지방을 중심으로 당에 대한 저항을 계속하였다. 당은 이 지역의 고구려 유민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하여 당에 포로로 잡혀 있던 보장왕을 요동 도독으로 임명하는 회유책을 쓰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의 이러한 민족 분열 정책은 오히려 고구려 유민들의 동족 의식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7세기 말에 이르러 당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자, 고구려 장군 출신인 대조영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 유민과 발갈 집단들은 전쟁의 피해를 거의 받지 않았던 만주 동부 지역으로 이동하여 길림성의 돈화시 동모산 기슭에 발해를 세웠다(698). 발해의 건국으로 이제 남쪽의 신라와 북쪽의 발해가 공존하는 남북국의 형세를 이루게 되었다.(p.62)
고대	대조영의 뒤를 이은 무왕 때에는 영토 확장에 힘을 기울여 동북방의 여러 세력을 복속하고 북만주 일대를 장악하였다. 발해의 세력 확대에 따라 신라는 북방 경계를 강화하였고 흑수부 발갈도 당과 연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발해는 먼저 장문휴의 수군으로 당의 산동 지방을 공격하는 한편, 요서 지역에서 당군과 격돌하였다. 돌궐·일본 등과 연결하면서 당과 신라를 견제하여 동북아시아에서 세력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p.62)

고대	그러나 10세기 초에 이르러 부족을 통일한 거란이 동쪽으로 세력을 크게 확대해 오고, 발해 내부에서 귀족들의 권력 투쟁이 격화되어 발해의 국력은 크게 쇠퇴하였다. 결국 23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오던 발해는 거란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였다(926). 이후 발해 유민들의 부흥 운동마저 실패함으로써 그동안 우리 민족의 주된 활동 부대의 일부였던 만주 지방에 대한 지배력이 급격히 약화되었다.(p.63)
중세	또한 무력으로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였으며, 더 나아가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하여 요동 지방을 공략하였다.(p.89)
중세	마침 병이 철령 이북의 땅을 차지하려 하자 최영은 이성계를 시켜 요동 정벌을 단행하였다.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회군하여(1388) 최영을 제거한 뒤, 군사적 실권을 장악하여 본격적인 개혁의 계기를 마련하였다.(p.91)
근세	조선은 영토의 확보와 국경 지방의 안정을 위하여 여진에 대하여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펴 나갔다. 우선 태조에 의하여 일찍부터 두만강 지역이 개척되었다. 이어 세종 때에는 4군과 6진을 설치하여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오늘날과 같은 국경선을 확정하였다.(p.108)
근대	한편, 청은 중국 대륙을 차지한 후에도 그들의 본거지였던 만주 지방에 관심을 기울여 이 지역을 성역화하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부가 두만강을 건너 인삼을 캐거나 사냥을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청과 국경 분쟁이 일어났다. 이에 조선과 청의 두 나라 대표가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 국경을 확정하여 정계비를 세웠다. 이 정계비에서 양국 간의 국경은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19세기에 이르러 토문강의 위치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 때문에 두 나라 사이에 간도 귀속 문제가 발생하였다. 결국 간도는 우리가 불법적으로 외교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간도 협약에 따라 청의 영토로 귀속되고 말았다.(p.130)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분석하여 표를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영토 관련 기사 기초 통계

	선사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계
민족기원	3						3
고조선	2						2
부여	1						1
고구려	2	2					4
백제		1					1
발해		3					3
고려			2				2
조선				1	1		2
계	8(44.4%)	6(33.3%)	2(11.1%)	1(5.5%)	1(6%)	0(0%)	18(100%)

이상의 표를 통해서 중국 관계 기사 가운데 중국과 관계된 영토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선사 시대와 고대 시기에 영토와 관련된 기사가 많다. 국사 교과서에서는 우리 민족의 기원 무대를 만주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 아시아 지역으로 보고 있다. 현재 중국의 영토에 편입되어 있는 요동, 만주, 요령, 길림 지방들을 고대 시기 우리의 활동 무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발해 이후로 이 지역을 상실하여, 중세 이후로는 요동 지방을 정벌하자는 시도나 북벌론 등을 통하여 이 상실한 영토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식이 국사 교과서에 반영되어 있다.

중국과 우리 나라는 고대사를 서술할 때, 기준이 서로 다르다. 중국은 현재의 중국의 영역을 기준으로 역사를 서술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는 민족이나 혈통을 기준으로 역사를 서술하고 있어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국사 교과서를 서술하는 데 있어, 이러한 관점을 어떻게 서

술하여 학생들에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유의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고구려사, 발해사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교과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대 이전 시기의 영토에 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의 형성에 교과서의 이러한 서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나. 사건과 인물 관련 기사 기초 통계

(1) 사건 관련 기사 기초 통계

중국 관계 기사 111건 가운데 중국과 관계된 사건을 서술한 내용들을 교과서 편제에 따라 발췌하여 시대별·영역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 사건 관련 기사의 시대별·영역별 기초 통계

시대 영역	선사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계
정치	4	10	8	8	6	1	37(39.8%)
경제	2	6	4	3	1	1	17(18.3%)
사회	1	2	2	2	1	0	8(8.6%)
문화	1	9	8	13	0	0	31(33.3%)
계	8(8.6%)	27(29.0%)	22(23.6%)	26(27.9%)	8(8.6%)	2(2.1%)	93(100%)

이상의 표는 중국 관계 기사 가운데 사건 93건을 시대별·영역별로 분석해 본 것이다. 이 분석을 통해서 중국 관계 기사는 선사 ~ 근세에 이르는 전근대사의 서술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영역별로 볼 때는 다른 영역에 비해 정치사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인물 기초 통계

여기서는 사진 관련 기사 속에서 인물을 발췌하여 그 성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사 교과서의 중국 관계 기사에 나타난 인물을 발췌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중국 관계 기사에 나타난 인물

시대 영역	선사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정치	위만	고이왕	이자겸	정도전		노태우
	준왕	미천왕	서희	이순신		
	한 무제	장수왕	양규	누르하치		
		성왕	박서	광해군		
		수 문제	강감찬	강홍립		
		수 양제	최우	인조		
		을지문덕	살리타	효종		
		연개소문	김윤후	송시열		
		당 태종	배중손	송준길		
		김유신	김통정	이완		
		복신	최영	윤휴		
		흑치상지	이성계			
		도침				
	풍					
경제						
사회				이승훈		

문화		김운경	주희	유수원		
		최치원	안향	홍대용		
		소수림왕	백이정	박지원		
		침류왕	이재현	박제가		
		도선	박충좌	징상기		
			이암	김정호		
			문익점	이광정		
			최무선	김육		
				아담 샬		
				마테오 리치		
				허준		

위의 표를 토대로 인물의 성향을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5〉 중국 관계 기사에 나타난 인물의 성향 분석

구분	한국인	중국인	서양인	계
침략자	0	6	0	6
방어자	12	0	0	12
문화의 수용	16	0	2	18
기타	29	1	0	30
계	57	7	2	66

이상의 표를 통해서 국사 교과서에 서술된 중국 관계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중국인 7명 가운데 6명이 모두 우리 나라를 침략한 침략자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침략을 막아낸 방어자로 서술되어 있거나, 문화의 수용과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인물의 분석을 통해서, 중국인은 침략자로 한국인은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경향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중국 관계 기사에서 주요 용어와 구성상의 문제점

1. 주요 용어 사용에서의 문제점

교과서뿐만 아니라 모든 책에서 주요 개념이나 용어는 정확하고 일관되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 현행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는 주요 역사 용어들이 일관된 원칙이나 기준 없이 사용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 한국에 있어서 중·고등학교의 국사 교과서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큰 것이다. 왜냐하면 국사 교과서가 국정으로 개편된 이후 전국의 모든 중·고등학생들이 이를 통해 대부분의 역사 지식을 획득하고 있으며, 대학에서도 한국사가 교양 필수 과목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더 이상 필수로 역사 지식을 획득할 기회가 따로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즉 적어도 한국에 있어 중·고등학교의 국사 교과서는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것이며, 한국인들의 역사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³⁾

가. ‘중국(中國)’이라는 명칭

오늘날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국’이라는 명칭은 ‘중화

13) 한국역사교과서연구회 편,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과 일본》, 해안, 2002, p.101.

민국(中華民國)'혹은'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의 약칭이다. 그러나 '중국'이라는 개념이 이러한 의미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전통 시대에 '수(隋)·당(唐)'이나 '명(明)·청(淸)'과 같은 왕조명과 별도로 사용되었던 '중국'이라는 개념도 있다. 이는 당시 중국인들이 스스로를 세계의 중심, 곧 '중국'이라고 인식하고 이 말을 사용한 데서 연유한다. 그리고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을 가리키는 통시대적인 별칭의 개념으로도 '중국'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이라는 말은 중화인민공화국과 같은 국가 명칭일 수도 있지만, 전통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중국을 지칭하는 범칭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중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중국'이라는 개념을 국사 교과서에서 사용할 때는 명확하게 개념 정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념 정의 없이 무분별하게 역사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사 교과서에서는 '중국'이라는 말이 중국 관계 내용을 서술하는데 있어서 빈번하게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관성을 찾을 수 없이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다. 현재 우리가 일상적으로 '중국'이라고 부르는 개념의 범주 안에는 역사상 존재했던 중원 왕조뿐만 아니라, '중원(中原)'왕조와 구별되는 별개의 여러 외래 민족의 왕조가 혼재되어 있다. 게다가 '중국'과 이러한 왕조의 구분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잦다.¹⁴⁾ 그러한 예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A : 이리하여 고려의 제지 기술은 더욱 발전하였으며, 질기고 희면서 앞뒤가 반질반질하여 글을 쓰거나 인쇄하기에 적당한 종이가 생산되었다. 당시

14) 김한규의 《한중관계사 I II》에서는 현재의 우리가 '중국'이라고 부르는 개념의 범주 안에는 역사상의 '중국' 뿐만 아니라 역사상의 '중국'과 구별되는 별개의 여러 역사공동체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약칭으로서의 '중국'과 중원의 한 역사 공동체를 가리키는 역사상 '중국'을 구별 짓고 있다.

고려에서 만든 종이는 중국에 수출되어 호평을 받았다.(p.276)

B : 서양 선교사들이 만든 근여만국전도와 같은 세계 지도가 중국을 통하여 전해짐으로써 지리학에서도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고, 지도 제작에서도 더 정확한 지도가 만들어졌다. 이를 통하여 조선 사람들의 세계관이 확대될 수 있었다.(p.319)

C : 그러나 뒤이은 대통령 선거에서 신군부 출신의 노태우가 당선되었다. 노태우 정부는 동구 공산주의 국가 및 소련,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북방 정책을 추진하여 성과를 올렸다.(p.353)

A의 경우는 ‘송’, B의 경우는 ‘청’이라는 왕조명을 쓰는 편이 더 정확한 표기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야만 역사적 원근감이 살아나 더 구체적인 표현이 될 수 있고, 아울러 C와 같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약칭인 ‘중국’과도 구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전근대사 서술이나 근현대사 서술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국’이라는 용어가 어떠한 왕조나 국가를 지칭하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중국 관계 내용을 서술할 때 매시기마다 신라, 고려, 조선과 같은 한국의 왕조명과 맞대응하는 중국의 왕조명을 쓰는 편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우며, 막연히 ‘중국’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서술 양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행 국사 교과서에는 ‘중국의 ~(왕조명)’로 서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데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표현으로 아래와 같은 사례가 있다.

A :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하여 동방의 예나 남방의 진이 직접 중국의 한과 교역하는 것을 막고, 중계 무역의 이득을 독점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군사적 발전을 기반으로 고조선은 한과 대립하였다.(p.36)

B : 성왕은 중앙 관청과 지방 제도를 정비하고, 승려를 등용하여 불교를 진흥 하였으며, 중국의 남조와 활발하게 교류하였다.(p.54)

C : 고구려는 중국의 전진을 통하여 소수림왕 때에 불교를 수용하였고(372), 백제는 동진에서 침류왕 때 불교를 받아들였다(384).(p.243)

D : 웅진 시기의 고분은 굴식 돌방 무덤 또는 널방을 벽돌로 쌓은 벽돌무덤 으로 바뀌었다. 벽돌무덤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완전한 형태로 발견된 무령왕릉이 유명하다.(p.252)

이상은 ‘중국의 ~’로 서술하고 있는 경우들을 뽑아본 것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중국이 어느 시대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 앞의 경우처럼 막연하게 ‘중국’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에 비하면, 좀 더 정확한 기술이다.

그런데 A와 C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한(漢)이나 전진(前秦), 동진(東晉)과 같은 구체적인 왕조명을 서술한 반면, B나 D의 경우에는 ‘중국의 남조(南朝)’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남조의 어떤 왕조인지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국사 교과서의 단원 개관 부분에서 우리 나라와 중국에 당시에 어떤 왕조가 있었다는 내용을 서술해주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굳이 ‘중국의’라는 표현을 붙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은 한 단락 내에서도 명칭이 일관성 없이 사용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예는 아래와 같다.

A : 삼국의 국제 무역은 4세기 이후 크게 발달하였다. 고구려는 남북조 및 유목민인 북방민족과 무역을 하였다. 백제는 남중국 및 왜와 무역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신라는 한강 유역을 획득하기 이전에는 고구려와 백제를 통하여 중국과 무역을 하였으나, 한강 유역으로 진출한 이후에는 당항성을 통하여 직접 교역하게 되었다.(p.138)

B : 그 후 장수왕 때에는 흥안령 일대의 초원 지대를 장악하는 한편 중국 남북조와 각각 교류하면서 대립하고 있던 두 세력을 조종하는 외교 정책을 써서 중국을 견제하였다.(pp.53-54)

A의 경우를 보면, 고구려는 ‘남북조(南北朝)’와 백제는 ‘남중국(南中國)’과 신라는 ‘중국(中國)’과 무역을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남북조’, ‘남중국’, ‘중국’이 어떠한 기준으로 사용된 것인지 애매하다. 남조와 남중국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혹은 중국이 남북조의 어느 왕조를 지칭하는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서술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교수·학습에 있어서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B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남북조의 어떤 왕조와 교류하였는지 모호하다. 장수왕이 중국을 견제하였다고 할 때, 중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중국을 말하는 것이며, 어떠한 의미로 사용된 것인지가 분명하지가 않다.

아울러 아래의 사례에서도 ‘중국’이라는 명칭과 왕조명이 함께 섞여 있어 더욱 선명하게 적절치 않은 서술 형태를 보여준다.

A : 국내 상업의 발달과 때를 같이하여 대외 무역도 점차 활기를 띠었다. 17세기 중엽부터 청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공적으로 허용된 무역인 개시와 사적인 무역인 후시가 이루어졌다. 청에서 수입하는 물품은 비단·약재·문방구 등이었고, 수출하는 물품은 은·종이·무명·인삼 등이었다. …… 특히, 의주의 만상은 대중국 무역을 주도하면서 재화를 많이 축적하였다.(p.182)

B : 이어 문왕 때에는 당과 친선 관계를 맺으면서 당의 문물을 받아들여 체제를 정비하고, 신라와도 상설 교통로를 개설하여 대립 관계를 해소하려 하였다. …… 이 무렵 발해는 이러한 발전을 토대로 중국과 대등한 지위

에 있음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하여 인안, 대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pp.62-63)

A의 경우는 ‘청’과의 무역과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데, 마지막 줄에서 ‘대중국 무역’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앞에서 계속 ‘청’이라고 서술했으면, ‘대중국 무역’ 보다는 ‘대청 무역’으로 서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B의 경우 신라는 당과 대응시키고 있으면서, 발해를 굳이 ‘중국과 대등한 지위’라고 서술하여, 중국과 대응시킬 필요는 없다. 그냥 신라와 마찬가지로 당시 중국의 왕조인 ‘당’이라고 쓰면 될 것이다.

이상의 사례들만 보더라도 국사 교과서의 중국 관계 기사에서 ‘중국’이라는 명칭과 왕조명이 매우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내용상 명확하게 당시의 왕조명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중국’이라는 막연한 표현보다는 그 당시 중국의 왕조명을 그대로 사용해 주는 것이 역사적 원근감을 살릴 수 있고,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중국의 ~’라는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비교적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종종 부정확한 표현들이 나타난다. 특히 한 문장이나 한 단락 속에서도 ‘중국’이라는 명칭과 왕조명을 섞어서 쓰고 있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게 할 가능성이 크다.

나. 왕조명·지역명 표기

(1) 왕조명 표기

국사 교과서에서는 중국 관계 내용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 수, 당, 명, 청 등과 같이 왕조명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간혹 왕조명 뒤에 굳이 ‘나라’를 붙여 사용하는 것이 눈에 띈다. 이에 대한 사례를 아래와 같이 찾을 수 있다.

A : 고조선은 요령 지방과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이룩하면서 발전하였다.……또 요서 지방을 경계로 하여 연나라와 대립할 만큼 강성하였다.(p.35)

B : 발해의 자기는 가볍고 광택이 있는데 그 종류나 크기, 모양, 색깔 등이 매우 다양하였다. 당시 당나라 사람들도 그 우수함을 인정하여 수입해 갔다고 한다.(p.257)

C : 조선의 백자는 고려 백자의 전통을 잇고 명나라 백자의 영향을 받아 이전보다 질적인 발전을 이루었다.(p.305)

D : 이들은 서울의 노론 집안 출신이 대부분이었으며, 청나라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부국강병과 이용 후생에 힘쓰자고 주장하였으므로 이들을 이용 후생 학파 또는 북학파라고도 한다.(p.314)

우리 나라 왕조명을 서술하는데 있어 ‘신라나라’, ‘조선나라’와 같은 표현은 없다. 모두 명칭을 통일하여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 조선이라고 표기하고 있지만, 중국의 역사를 서술하는데 있어서는 간혹 ‘당나라’, ‘청나라’ 등의 표기들이 눈에 띈다. 위의 A, B, C, D 사례들을 보더라도 모두 불필요하게 ‘나라’를 붙임으로써, 표기의 일관성을 유지하

지 못한다. 왕조명 뒤에 굳이 ‘나라’를 붙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용상 지장이 없을 것이다. 참고로 제6차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는 ‘청국’이라는 표현도 눈에 띈다.¹⁵⁾ 그러나 7차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표기는 없어서 이전보다는 개선되었다.

요컨대 우리 나라 역사를 서술할 때 왕조명으로 일관성 있게 표기하고 있다면, 중국의 역사를 서술할 때에도 역시 왕조명으로 일관성 있게 표기해 주어야 할 것이다.

15) 제6차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서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항 이래, 조선을 둘러싸고 전개된 열강의 정치적, 군사적 침략 경쟁은 갑신 정변 후에 더욱 가열되었다. 청국과 일본 간의 침략적 대립은 더욱 격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영국까지도 조선 문제로 충돌하게 되었다(국사 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 Ⅱ(6차)》,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6. p.83).”

(2) 지역명 표기

중국의 지명을 표기하는데 있어 어떤 것은 한자음으로, 어떤 것은 중국어 발음으로, 또 어떤 것은 괄호를 사용하여 한자음과 중국어 발음을 함께 표기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이러한 예를 찾아서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6〉 지역명 표기의 예

표기 방법	지명	페이지
한자음	요령	34
	요서	35
	요하	58
중국어 발음	산둥	52
	양쯔 강	142
	덩저우	144
	하얼빈	85
	베이징	233
한자음(중국어 발음)	요령(랴오닝)성	21
	길림(지린)성	21

위의 표를 통해서 보면, ‘요령(遼寧)’, ‘요서(遼西)’, ‘요하(遼河)’는 한자 발음으로 표기되어 있고, ‘산둥(山東)’, ‘양쯔(揚子) 강’, ‘덩저우(登州)’ 등은 중국어 발음으로 표기되어 있어 일관성이 없다. 게다가 괄호를 사용하여 병용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도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35페이지에 있는 지도에서 보면 ‘고조선(古朝鮮)의 세력 범위’를 표시하고 있다. 교과서 본문에서는 ‘요하’라고 쓰고 있는데 지도에는 ‘랴오허 강’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 지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규슈 지방에까지 진출하는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벌였다.(p.52)

C : 이에 반해는 먼저 장문휴의 수군으로 당의 산둥 지방을 공격하는 한편, 요서 지역에서 당군과 격돌하였다.(p.62)

A는 한자음 표기와 한자음과 중국어 발음이 병용 표기되어 있다. B와 C는 똑같은 중국의 지명인데도 ‘요서’는 한자음으로 ‘산둥’은 중국어 발음으로 표기하고 있다. 표기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일관성 없는 표기들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가령 한자음을 표기하고, 괄호를 사용하여 중국 발음을 신는 다든지, 혹은 기타의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표기의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왕조명 표기와 지역명 표기의 두 가지 경우를 통해서만 보더라도 국사 교과서에 서술된 중국 관계 기사에서 뚜렷한 원칙이나 기준 없이 되고 있는 표기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중국 관계 기사에서만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다. 일본과 관련된 서술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자면,

가야의 소국들은 일찍부터 벼농사를 짓는 등 농경 문화가 발달하였다. 또한 풍부한 왜의 규슈 지방을 연결하는 중계 무역이 발달하였다.(p.51)

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는,

정복 활동을 통하여 축적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백제는 수군을 정비하여 중국의 요서 지방으로 진출하였고, 이어서 산둥 지방과 일본의 규슈 지방에까지 진출하는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벌였다.(p.52)

라고 서술하였다. ‘일본(日本)’과 ‘왜(倭)’라는 개념이 뚜렷한 기준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이라는 명칭과 왕조명이 애매

하게 사용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더구나 일본 지명의 경우도 ‘구주(九州)’라는 한자음 발음이 아니라 일본어 발음인 ‘큐슈’로 표기되고 있다.

요컨대 중국 관계 기사에서 주요 용어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중국’이라는 명칭이 구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왕조명이나 지명을 표기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국정 교과서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된다는 것은 심각한 오류라고 할 수 있다. 향후 교과서 개편시에는 용어 사용과 표기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한 토대 위에서 집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교과서 구성상의 문제점

현행 교과서에서는 주요 용어 사용의 혼란스러움과 일관성 없는 표기뿐만 아니라, 구성상의 문제점도 드러난다. 앞에서 일관되지 않은 표기가 문제되었던 것처럼, 비슷한 비중을 가진 사건들이 불균형하게 서술되어 있다면,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크다. 국사 교과서 부록의 연표에 실려 있는 ‘주요 사항’ 가운데, 중국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은 모두 그 당시에 의미가 있는 사건들이므로, 그 사건들이 가지는 중요성이나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클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서술 내용의 비중도 비슷해야 할 것이다. 어떤 사건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서술해 놓고, 어떤 사건은 단편적 서술로만 그칠 경우, 학생들은 전자의 경우가 더 중요한 사건일 것이라고 잘못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서술 균형상의 문제점을 짚어 보도록 하겠다.

가. 시대별 불균형

앞의 <표 3> 을 참고로 중국 관계 기사 가운데 사건과 관련된 기사의 통계를 살펴보면, 선사 8.6%, 고대 29.0%, 중세 23.6%, 근세 27.9%, 근대 8.6%, 현대 2.1%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통계만 보더라도 근현대사에 비해 전근대사의 서술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서술의 균형 여부를 검토하기에 앞서 중국 관계 기사 가운데 몇 가지 주요한 사건들을 추출하였다. 여기서는 국사 교과서 연표의 주요 사항을 참고하여, 그 가운데 중국과 관계된 것만을 발췌하여 아래와 같이 표를 만들었다.

<표 7> 국사 교과서의 중국 관계 주요 사건

시대 구분	분야	연도	주요사건	행(페이지)
고대	정치	313	고구려, 낙랑군 멸망시킴	2(p.52)
고대	문화	372	고구려, 불교 전래 백제, 동진에 사절 보냄	1(p.243)
고대	문화	384	백제, 불교 전래	1(p.243)
고대	정치	612	고구려, 살수대첩 ¹⁶⁾	9(p.58)
고대	문화	624	고구려, 당에서 도교 전래	2(p.244)
고대	정치	645	고구려, 안시성 싸움 승리	15(p.58)
중세	정치	1019	귀주 대첩	6(pp.84-85)
중세	정치	1231	몽고의 침입	44(pp.86-87)
중세	정치	1274	여·원의 일본 정벌	기사 없음
중세	정치	1359	홍건적의 침입	3(p.90)
중세	문화	1363	문익점, 원에서 목화씨	2(p.277)

		가져옴		
중세	정치	1592(~1598)	임진왜란	10(p.111)
중세	정치	1627	징묘호란	5(pp.113-114)
중세	문화	1631	천리경, 자명종, 화포 등 전래	6(p.318)
중세	정치	1636	병자호란	22(p.114)
중세	문화	1645	과학, 천주교 등 서양 서적 전래	9(p.233)
중세	정치	1712	백두산 정계비 건립	5(p.130)
근현대	문화	1881	신사 유람단 및 영선사 파견	기사 없음
근현대	정치	1882	임오군란	2(p.334)
근현대	정치	1884	갑신정변	5(p.334)
근현대	정치	1894	동학 농민 운동	기사 없음
근현대	정치	1909	일본, 청과 간도 협약 맺음	5(p.130)
근현대	정치	1950	6·25전쟁	기사 없음
근현대	정치	1992	중국과 국교 수립	3(p.353)

위의 표에서 주요 사건별 서술 분량을 보면, 그 양이 제각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역사적 비중이 비슷한 사건들조차도, 어떤 것은 서술이 자세하고 분량이 많으며, 어떤 것은 서술이 매우 단편적이고 소략하다.

서술 분량이 비교적 많은 것을 찾아보면, ① 몽고의 침입, ② 병자호란, ③ 고구려의 안시성 싸움·살수대첩, ④ 임진왜란 등으로 순서를 매길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보면, 서술 분량이 많은 것은 주로 고대나 중세, 즉 전근대사 서술에 관련된 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모두 대외 항쟁사 위주의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이 점에 대해서

16) 표 안의 굵은 글씨는 상대적으로 서술 분량이 많은 것을 나타낸다.

는 IV장 1절에서 다시 다루겠다).

이에 비해 근현대사 서술은 대부분 매우 단편적이고 소략하여 5행을 넘지 않는다. 그 전문을 열거하자면 아래와 같다.

A : 임오군란 : 개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임오군란이 일어났다. 그 결과 청의 내정 간섭과 정부의 친청 정책으로 인하여 개화 정책은 후퇴하였다.(p.334)

B : 갑신정변 : 이에 대한 반발로 급진 개화파들은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삼일천하로 끝난 이 정변은 개혁 주체의 세력 기반이 약했던 점, 외세에 의존하면서 정변의 방법으로 권력을 잡으려 하였던 점, 청의 무력 간섭 등으로 실패하였다. 그 결과 청의 내정 간섭이 더욱 심해졌고 개화 세력은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나 갑신정변은 근대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최초의 정치 개혁 운동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p.334)

C : 간도협약 : 이 정계비에서 양국 간의 국경은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19세기에 이르러 토문강의 위치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 때문에 두 나라 사이에 간도 귀속 문제가 발생하였다. 결국 간도는 우리가 불법적으로 외교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간도 협약에 따라 청의 영토로 귀속되고 말았다.(p.130)

D : 중국과 국교 수립 : 노태우 정부는 동구 공산주의 국가 및 소련,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북방정책을 추진하여 성과를 올렸다.(p.353)

고대사 부분의 경우 무려 ① 몽고의 침입은 44행, ② 병자호란은 22행, ③ 고구려의 안시성 싸움, 살수대첩은 24행, ④ 임진왜란은 10행 서술되어 있는데, 이와 비교해 볼 때 앞의 기사들이 5행을 넘지 않는다는 것은 내용이 빈약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뿐만 아니라 A와 B기사의 경우 제6차 국사 교과서에 비해 내용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게다가 C기사의

경우는 제6차 국사 교과서(하)에서 ‘간도와 독도(p.95)’라는 독립항목으로 서술되었으나, 지금의 교과서에는 백두산 정계비의 서술과 함께 다루어지고 있어 서술이 크게 약화되었다.

D의 중국과 국교수립 기사도 전근대에서부터 중국과의 관계의 연속선상에서 볼 때, 항쟁사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지만 단 두 줄로 끝나 버렸다. 실제로는 1992년에 이루어진 한중수교, 즉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상호 승인과 대사 교환은 한중관계사의 새로운 장을 연 역사적 이정표로 평가될 수 있다.¹⁷⁾ 그러므로 한중 수교는 그 역사성을 좀 더 강조하여 서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행 제7차 국사 교과서에서처럼,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중국 관계 기사의 서술 비중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이전의 제6차 국사 교과서와 비교해 보더라도 서술이 생략되고 축소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임오군란(壬午軍亂)에 대한 서술의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자.

〈표 8〉 임오군란에 대한 제6·7차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기술 비교

구분	6차	7차
내용	임오군란은 대원군의 재집권으로 인정되는 듯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조선을 둘러싼 청·일 양국 간의 대립을 초래하였다. 즉, 일본은 조선 내의 기류민 보호를 내세워 군대 파견의 움직임을 보였으며, 이에 청은 신속히 군대를 조선에 파견하여, 대원군을 군란의 책임자로 청에 압송해 감으로써 일본의 무	개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임오군란이 일어났다. 그 결과 청의 내정 간섭과 정부의 친청 정책으로 인하여 개화 정책은 후퇴하였다.(p.334)

17) 김한규, 앞의 책, p.1003.

	<p>력 개입 구실을 없애려 하였다. 이때, 조선은 일본과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여 배상금을 물고,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 주둔을 인정하였다. 청은 이후 조선의 내정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였다. 곧, 위안 스카이 등이 지휘하는 군대를 상주시켜 조선 군대를 훈련시키고, 마 쟈창과 뮐렌도르프를 고문으로 파견하여 조선의 내정과 외교 문제에 깊이 간여하였다. 또, 조선은 상민수륙무영장정의 체결로 청나라 상인의 통상 특권을 허용하게 되고, 경제적 침략을 받게 되었다. 한편, 다시 집권하게 된 민씨 일파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친청 정책으로 기울어졌다.(p.80)</p>	
--	---	--

위의 표에서 보이듯이 내용의 차이가 현저하게 드러난다. 제6차 국사 교과서에서는 임오군란의 기사가 총 14줄로 서술되어 있는데 반해 제7차 국사 교과서는 단 2줄로만 서술되어 지나칠 정도로 축소되었다.

참고로 현행 중국 역사 교과서의 경우, 《중국 고대사(中國古代史)》는 1권, 《중국 근현대사(中國近現代史)》는 상·하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게다가 《중국 근현대사》의 경우, 필수 과목이지만, 《중국 고대사》의 경우 선택 과목이다.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중국은 근현대사를 강조하는 경향인데, 우리는 여전히 전근대사에 비중을 두고 있다. 게다가 근현대사 부분은 현실적으로 수업을 받기도 힘든 실정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한국 근현대사를 선택과목으로 하여 가르치고 있다. 한국근현대사를 선택하여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근현대사에 대한 보다

심화된 이해를 가능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학생들에게는 근현대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능하게 할 만한 기회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독립된 국사 교과서 한편 자체라도 그 나름대로의 체계를 갖추고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현행 제7차 국사 교과서에서는 전 근대사까지는 정치·경제·사회·문화로 영역별로 분류하여 서술하고 있지만, 근현대사 부분은 'Ⅶ. 근현대사의 흐름'이라고 따로 편제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를 한꺼번에 서술하고 있다.

요컨대 전근대사와 근현대사 서술의 불균형 문제는 이러한 교과서 편제 자체의 문제에서 연유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향후 교과서 개편시에는 이러한 편제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근현대사는 우리의 현실과도 더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현재 우리 삶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에도 소홀히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나. 주제 영역별 불균형

앞에서의 시대별 불균형과 함께 여기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주제 영역별 불균형을 지적하도록 하겠다. 중국 관계 내용에서 정치적인 분야가 주류를 이루고 문화·사회·경제적 측면이 빈약하다는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은 대외 무역, 국제 무역에서 비교적 균형적으로 서술되고 있지만, 문화면의 기술은 단편적으로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것도 역시 II장의 기초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비중을 살펴보면, 정치 39.8%, 경제 18.3%, 사회 8.6%, 문화 33.3%이다. 즉 정치 영역에서 중국 관계 기사의 비중이 가장 높다.

양적으로 볼 때도 정치 영역의 서술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정치와 관계된 기사는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문화사는 단편적인 서술로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예를 하나씩만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정치 : 고구려와 당의 전쟁 : 수의 뒤를 이은 당은 건국 초에는 유화정책을 취했으나 곧이어 동북아시아 방면으로 세력을 뻗어 왔다. 이에 고구려는 국경 지방에 천리 장성을 쌓고, 방어 체제를 강화하는 등 당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특히, 연개소문은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권력을 장악하면서 대내적으로 독재 정치를 단행하고, 대외적으로는 당에 대하여 강경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당의 태종은 직접 수십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요동의 여러 성을 공격하였다. 당의 군대는 요하를 건너 요동성, 개모성, 비사성 등을 빼앗고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안시성을 공격하였다. 안시성에서 군민이 합심하여 60여 일간이나 완강하게 저항하는 사이 전열을 정비한 고구려는 대대적인 반격을 펼쳐 마침내 당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다. 이후 고구려는 당의 빈번한 침략을 물리쳐 당의 동북아시아 지배 야욕을 좌절시켰다.

고구려가 수·당과 싸워 이겨 그 침략을 막아 낸 것은 고구려의 국가 보위뿐만 아니라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침략을 저지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p.58)

문화 : 원에서 목화씨 수입 : 고려 후기에는 중국의 농서를 도입하여 이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암은 원의 농상집요를 소개 보급하였는데 이는 농업 기술에 대한 학문적 연구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공민왕 때 문익점이 원에서 목화씨를 들여왔으며, 이로써 목화 재배가 고려 말에 시작되어 의생활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p.277)

이상의 예는 임의로 뽑아본 것이다. 그러나 이 예만 보더라도 정치사에서는 인과관계가 상세히 서술되고 있지만, 문화사에서는 단순하게 서술되어 있다. 문익점이 원에서 목화씨를 어떻게 들여오게 되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서술해 준다면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위와 같이 필자는 현행 제7차 국사 교과서에서 교과서 구성상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것을 정리하자면, 첫째,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중

국 관계 서술이 균형적이지 못하다. 전근대사에 비해 근현대사 서술이 매우 소략하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균형 있는 역사 인식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둘째, 주제 영역별 서술 경향이 서로 달라 불균형한 형태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 관련 내용들을 뽑아내 볼 때, 체계적이지 못하고, 과편화되어있는 구성상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IV. 중국 관계 기사에서 내용상의 문제점

앞 장에서는 중국 관계 기사에서 주요 용어와 구성상의 문제점을 짚어 보았다. 이 장에서는 중국 관계 기사의 내용상의 문제점을 다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는 정치·외교 분야 내용의 문제점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경제 분야 내용의 문제점이다.

1. 정치·외교 분야

여기에서는 중국과 관련된 사건 가운데, 전근대 시기의 한사군,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몽고의 침입, 정묘호란, 병자호란, 근현대 시기의 청과의 관계, 6·25전쟁, 국교 수립 등을 소재로 삼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밖에 다른 세세한 사건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역사적 사건들을 중심으로 선택적인 설명을 하고자 한다.

가. 배경 설명의 부족

우선 현행 국사 교과서에서는 역사의 전개나 문화의 형성을 논의할 때 주변 국가들과 관련을 지으면서 설명하는 것이 극히 적다는 점을 들고 싶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배경 설명을 지나치게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¹⁸⁾ 이러한 경향은 근현대사 부분의 서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고대사 부분의 서술도 예외는 아니다. 고대사에서는 한사군을, 근현대사에서는 청의 내정 간섭, 동학 농민 운동의 청군 개입, 6·25전쟁을 예로 들어 배경 설명 부족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한사군에 대한 서술부터 살펴보자.

(1) 한사군(漢四郡)

일반적으로 ‘한사군’이라 불린 고대 중국의 동방(東方) 군현(郡縣) 조직은 기원전 108년에 설치되어 기원후 313년에 소멸될 때까지 400여 년간 요동(遼東)에 존속하면서, 동북아의 문화적 통로로 작용하였다. 이에 대한 국사 교과서의 서술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A : 고조선이 멸망하자 한은 고조선의 일부 지역에 군현을 설치하여 지배하고자 하였으나 토착민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그리하여 그 세력은 점차 약화되었고 결국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소멸되었다.(p.36)

B : 그리하여 압록강 가의 국내성(통구)으로 옮겨 5부족 연맹을 토대로 발전하였다. 그 후 활발한 정복 전쟁으로 한의 군현을 공략하여 요동 지방으로 진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쪽으로는 부전고원을 넘어 옥저를 정복하여 공물을 받았다.(p.39)

C : 변한에서는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 왜 등에 수출하였다. 철은 교역에서 화폐처럼 사용되기도 하였다.(p.42)

이상의 서술을 보면, B와 C의 기사는 사실상 고구려와 변한(弁韓)에 관련된 기사로, 한의 군현, 낙랑(樂浪) 정도의 용어만 언급될 뿐이다. 따라서 A의 기사가 한사군 관련 유일한 기사인데, 사실상 ‘고조선의 일부 지역에

18) 이성시, <한일 역사 교과서의 고대사 서술을 둘러싸고>, 《지역과 역사의 투쟁》, 삼인, 2002, pp.142-143.

근현을 설치하여 지배하고자 하였으나,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소멸되었다.'라고만 기술 되어 있다. 종래 한사군 관련 연구는 대부분 위치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었을 뿐 그 성격과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되지 못하였다.¹⁹⁾ 그리고 과거 일제 시대에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한사군의 문제가 왜곡된 바 있다. 즉, 낙랑군을 과대 평가하여 한국인의 주체성을 무력화 시킴으로써 단군 신화를 근거로 한 민족 운동을 봉쇄하고 억압하려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한 반발로 해방 이후 한사군에 대한 기사가 교과서에서 대폭 축소되었다고는 하지만, 무려 420년에 걸친 낙랑의 역사를 지나치게 경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²⁰⁾ 게다가 한사군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밝히지 않은 채, 낙랑을 한두 줄로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은 서술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낙랑군이 한국의 고대 국가 형성에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한 이래 중국 역대 왕조들과의 관계를 탐구하는 데도 이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주제이다. 즉 한사군은 고구려를 비롯한 예맥계 국가의 출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한사군의 설치와 철폐에 대한 고대의 정치적 관계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자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청의 내정 간섭

교과서 전체 구성에서 현저하게 적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근현대사 부분에서는 한중 관계에 대한 배경 설명이 더욱 소략하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역사 사실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불가능한 경우조차 있다. 제7차 국사교과서에서 임오군란(壬午軍亂)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자.

1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4》, p.108, 1997.

20) 이성시, 앞의 책, pp.142-143.

개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임오군란이 일어났다. 그 결과 청의 내정 간섭과 정부의 친청 정책으로 인하여 개화 정책은 후퇴하였다.(p.334)

위의 내용만에 따른다면, 우선 임오군란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불분명하다. 그리고 임오군란 이후 청의 내정 간섭이 왜 심해졌는지, 조선 정부는 왜 친청 정책을 취하게 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짧게 서술되어 있다. 앞서 이미 언급했듯이 이전의 6차 국사 교과서와 비교해보면, 임오군란에 대한 서술이 매우 간략화 되었다.

아울러 청·일 전쟁의 서술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청·일 전쟁은 전통적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와해되고, 근대적 일본 위주의 동아시아 질서가 새롭게 재편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는 전쟁이다. 제7차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청일전쟁(淸日戰爭)에 관련된 서술은 겨우 두 줄 뿐이다.

고종은 국정 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홍범 14조를 반포하였으며, 청·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은 조선의 개혁에 적극 개입하였다.(p.336)

앞의 임오군란의 경우처럼 지나치게 간략히 청일전쟁을 기술한 것은 당시에 청과 일본을 둘러싼 대립구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청의 조선 정부에 대한 내정간섭 등도 이해하기 힘들어 진다. 제7차 중학교 국사 교과서 청일전쟁 관련 기술이 소략하기도 마찬가지다.²¹⁾

필자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는 대단히 복잡하면서도 역동적이었으며, 국제정세의 변동이 조선(대한제국)의 운명과 직결되었음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교육적인 배려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21) 제7차 중학교 교과서의 서술은 다음과 같다. “전주 화약을 맺은 후 농민군이 해산하자, 정부는 일본군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궁궐을 침범하였으며, 청·일 전쟁을 일으켰다(p.209).”

를 둘러싼 복잡한 국제 관계를 냉정하고 균형 있게 가르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경험적 전개를 학생들의 역사의식 속에 자리 잡게 해야 하며, 특히 남북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달성해야 할 우리의 처지에서 볼 때, 당시의 국제관계에 대한 반성적인 교육은 통일과정에서의 복잡한 국제 관계를 뚫고 나가는 데 있어 미래지향적인 역사교육이 될 것이다.²²⁾

(3) 동학(東學)농민운동과 청군(淸軍)개입(1894)

제6차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는 이 주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비교적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동학 농민군을 무력으로 진압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청에 파병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청이 조선에 파병하게 되자, 일본도 텐진 조약을 구실로 조선에 군대를 보내어 마침내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한편, 동학 농민 운동을 계기로 청·일 양국군이 조선에 들어왔으나, 이미 정부와 동학 농민군 사이에는 전주 화약이 성립되어 외국 군대의 조선 주둔에 대한 명분은 사라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조선에서의 내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내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내면적인 의도는, 일본군의 조선 주둔의 명분을 찾고, 나아가서 청과의 전쟁 구실을 만들어 청의 세력을 조선에서 몰리친 후,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통해 경제적 이권 탈취와 함께 침략의 기반을 닦으려는 것이었다.²³⁾

그런데 현행 제7차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는 ‘동학 농민 운동과 청군 개입’에 관해서 생략되어 있다. 이처럼 이전 교과서에서는 상세히 다루고 있는데, 현행 교과서에서는 언급이 없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조선과 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19세기의 동아시아 정세

22) 신주백, 〈동아시아 근현대사에 나타나는 전쟁과 평화에 대한 기억의 차이, 그리고 역사교육〉, 《화해와 반성을 위한 동아시아 역사인식》, 역사비평사, 2002, pp.68-69 참고.

23) 국사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 하(6차)》,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6, pp.86-87.

를 파악하는 데에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언급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4) 6·25전쟁의 중공군개입(1950)

또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6·25전쟁에 관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6·25전쟁에서 중국군이 개입한 역사적 사실²⁴⁾은 현대사의 판도를 이해하는데 무척 중요한 문제인데, 교과서에서 이에 대한 서술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 6·25전쟁에 대한 교과서 서술을 살펴보자.

한편,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가 구성되어(1946. 2) 사실상 정부의 구실을 하였다. 그 후 공산주의 지배 체제를 확고히 한 뒤에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수립되었다(1948. 9. 9). 이어 북한 정권은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한 무력 남침을 준비하고, 마침내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38도선 전역에 걸쳐서 남침을 감행하였다.

이후 3년간 계속된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 주었다. 수많은 사람이 살상되고 전 국토가 초토화되어 대부분의 산업 시설이 파괴되었다. 이와 동시에 남북 간에는 적대 감정이 팽배하게 되어 분단이 더욱 고착화되었다.(p.3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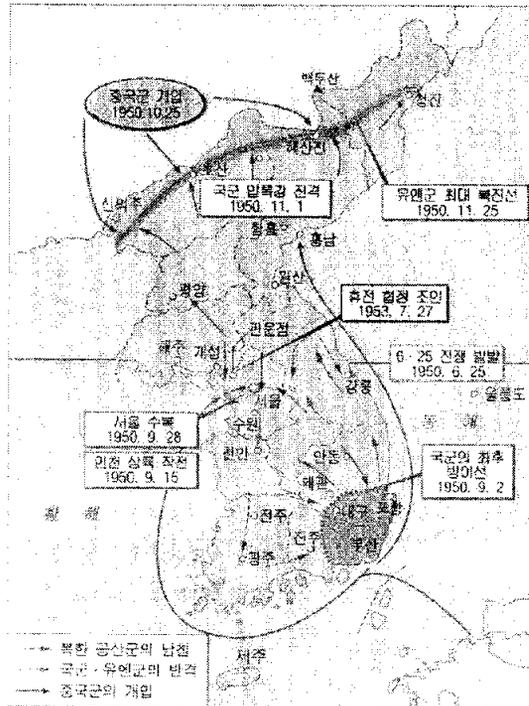
이상의 내용을 보면, 북한이 남침을 감행하여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 주었고, 분단이 더욱 고착되었다는 내용이 전부이다. 참고로

24) 중국이 한국 전쟁에 참여한 것을 가리켜 중국에서는 ‘항미원조(抗美援朝)’ 운동이라고 불렀다. 이는 중국 당국이 한국 전쟁 참전의 의미를 두 가지로 파악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그 하나는 1945년부터 1949년까지 진행된 내전의 연장선상에서 한국 전쟁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항미’란 곧 국민당 정권을 도와 중국 공산당 세력을 전멸하려 한 미국이 한국 전쟁을 이용하여 중국을 다시 침공하려 한다는 위기 의식을 반영하였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부상하는 미군을 저지하여 중국과 요동을 지키기 위해 한국 전쟁에 참전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한국이 외세로부터 침략을 당할 때는 중국의 국가가 당연히 도와 주어야 한다는 전통적 의식이 표출되었다. 마치 임진왜란 때 명이 조선에 원군을 보내어 주고 갑오청일전쟁 때 청이 조선에 군대를 파견했던 것처럼, ‘미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보내어야 한다는 의식의 표현이 ‘원조’운동이었다. 이는 전통적 관념이 근대화 이후에도 쉽게 소멸되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김한규, 앞의 책, pp.991-994.)

6·25전쟁에 대한 아래의 전황 관련 그림 자료 속에는 중국군 개입이 보인다. 하지만 교과서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그림 2〉 6·25전쟁의 전황



물론 국사 교과서에서 이러한 중공군의 참전 의도까지 다 설명하는 데는 지면상, 내용의 균형상 무리가 따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전쟁은 세계사적 시야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다. 왜냐하면 미·소 냉전체제라는 세계사적 흐름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여 당시의 국제정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학생들에게 현실에서도 국제정세를 파악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을 것이다.

나. 대외 항쟁사 위주의 기술

우리 나라는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입을 받은 일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당할 때마다 불굴의 의지로 항전하여 나라를 지켜왔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역사를 ‘국난 극복의 역사’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국사를 서술하는데 있어, 이러한 국난 극복의 역사를 다루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국사 교과서에서는 지나치게 외세의 침략에 대항하여 싸워 이긴 항쟁사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렇게 대외 항쟁사 중심으로 되어 있어 다른 측면의 서술은 경시된 느낌을 준다.

기존의 교과서의 경우 중국(中國)과의 항쟁사와 북방(北方) 민족과의 항쟁사를 분명히 구분 짓기 보다는 대외 관계의 연속선상에서 기술하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를 나누어 살펴 보겠다. 왜냐하면, 중국 및 북방민족과의 항쟁사는 분명한 국가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1) 중국과의 항쟁사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대 시기에는 수·당과의 전쟁이 있었고, 중세 시기에는 거란·여진·몽고 등의 북방 민족의 침입을 받은 바 있으며, 다시금 호란과 왜란을 겪었다. 또한 근대 시기에는 조선을 침탈하려는 제국주의 열강들에 의해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국사 교과서에서 발췌한 사건 관련 기사 가운데 정치 영역의 기사를 분석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9〉 정치사 서술 분석

시대 영역	선사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계
교류·외교	1	2	1	5	1	1	11(29.7%)
대외항쟁	2	7	6	1	0	0	16(43.2%)
내정간섭	0	0	1	0	2	0	3(8.1%)
독립운동	0	0	0	0	3	0	3(8.1%)
기타	1	1	0	2	0	0	4(10.8%)
계	4(10.8%)	10(27.0%)	8(21.6%)	8(21.6%)	6(16.2%)	1(2.7%)	37(100%)

이상의 표를 통해서 보면, 정치사 서술 가운데 대외 항쟁과 관련된 기사가 43.2%나 되어, 정치사에서 대외 항쟁사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의 〈표 7〉을 참고로 하여, 국사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는 중국과의 항쟁사를 시대별로 보면, ① 낙랑군 멸망(313), ② 살수대첩(612), ③ 안시성 싸움(645), ④ 임진왜란(1592), ⑤ 정묘호란(1627), ⑥ 병자호란(1636) 등을 들 수 있다. 정치 분야에서 중국과의 우호적인 사건은 거의 언급되지 않으며, 굳이 찾자면 1992년의 한중 국교 수립 하나 정도이다. 중국과의 항쟁에 관련된 국사 교과서의 서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 낙랑군 멸망 : 미천왕 때에 낙랑군을 완전히 몰아낸 고구려는 압록강 중류 지역을 벗어나 남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p.52)

B : 살수대첩 : 6세기 말 남북조로 분열되었던 중국을 통일한 수는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당시 한반도에서 신라의 위협을 받던 고구려는 북쪽의 돌궐과 연결하고, 남으로 백제·왜와 연결하는 연합 세력을 구축하여 이에 대응하였다. 수의 압박으로 돌궐의 세력이 약화되자 위기 의식을 느낀 고구려는 먼저 중국의 요서 지방을 공격하였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수의 문제와 양제는

잇따라 백만 명이 넘는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고구려에 침략해 왔다. 고구려는 병력 규모는 작았으나 요하를 굳게 지켜 분제의 침략을 막아 냈고, 양제의 침입 때에는 을지문덕이 적을 유인한 뒤 살수에서 크게 격파하여 결정적인 승리를 기두었다. 이를 살수대첩이라한다.(p.58)

C : 안시성 싸움 : 수의 뒤를 이은 당은 건국 초에는 유화정책을 취했으나 곧이어 동북아시아 방면으로 세력을 뻗어 왔다. 이에 고구려는 국경 지방에 천리 장성을 쌓고, 방어 체제를 강화하는 등 당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특히, 연개소문은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권력을 장악하면서 대내적으로 독재 정책을 단행하고, 대외적으로는 당에 대하여 강경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당의 태종은 직접 수십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요동의 여러 성을 공격하였다. 당의 군대는 요하를 건너 요동성, 개모성, 비사성 등을 빼앗고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안시성을 공격하였다. 안시성에서 군민이 합심하여 60여 일간이나 완강하게 저항하는 사이 전열을 정비한 고구려는 대대적인 반격을 펼쳐 마침내 당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다. 이후 고구려는 당의 빈번한 침략을 물리쳐 당의 동북아시아 지배 야욕을 좌절시켰다. 고구려가 수·당과 싸워 이겨 그 침략을 막아 낸 것은 고구려의 국가 보위뿐만 아니라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침략을 저지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p.58)

D : 임진왜란 : 일본은 전국 시대의 혼란을 수습한 뒤 철저한 준비 끝에 20만 대군으로 조선을 침략해 왔다(1592). 이를 임진왜란이라고 한다. 전쟁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조선은 전쟁 초기에 왜군을 효과적으로 막아 낼 수 없게 되자 선조는 의주로 피난하여 명에 원군을 요청하였다.…… 수군과 의병의 승전으로 조선은 전쟁 초기의 수세에서 벗어나 반격을 시작하였다. 아울러 명의 원군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조·명 연합군은 평양성을 탈환하였으며, 관군과 백성들이 합심하여 행주산성 등에서 적의 대규모 공격을 물리쳤다. 이에 왜군은 서울에서 후퇴하여 경상도 해안 일대에서 장기전에 대비하였다. 3년여에 걸친 병과 일본 사이의 휴전 회담이 결렬되자 왜군이 다시 침입해 왔다. 이를 정유재란이라 한다. 그러나 조·명 연합군이 왜군을 직산에서 격퇴하고 이순신이 적선을 명량에서 대파하자 왜군은 남해안 일대로 다시 후퇴하였다. 결국 전세가 불리해진 왜군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본국으로 철수하였다.(pp.11-112)

E : 정묘호란 : 인조 반정을 주도한 서인은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을 비판하고, 진명 배급 정책을 추진하여 후금을 자극하였다.

후금은 광해군을 위하여 보복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쳐들어와 평안도 의주탈 거처 황해도 평산에 이르렀다. 이를 정묘호란이라고 한다.

그 후 후금은 세력을 더욱 확장하여 국호를 청이라 고치고, 심양을 수도로 하였다. 군신 관계를 맺자는 청의 요구에 조선에서는 외교적 교섭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화론과 청의 요구에 굴복하지 말고 전쟁까지도 불사하자는 주전론이 대립하였다. 결국 대세가 주전론으로 기울자 청은 다시 대군을 이끌고 침입해 왔다. 이를 병자호란이라 한다.(pp.113-114)

G : 병자호란 :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난하여 청군에 대항했으나 결국 청에 굴복하고 말았다. 이로써 조선은 청과 군신 관계를 맺게 되었고, 두 왕자와 강경한 척화론자들이 인질로 잡혀갔다.

청군의 침입은 왜군의 침입에 비하여 기간이 짧았고 지역적으로도 일부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피해가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청군이 거처간 서북 지방은 약탈과 살육에 의하여 황폐해졌고, 무엇보다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컸다. 그동안 조선에 조공을 바쳐 왔고, 조선에서도 오랑캐로 여겨 왔던 여진족이 새운 나라에 기꾸로 군신 관계를 맺게 되고, 임금이 굴욕적인 항복을 했다는 사실은 조선인들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 이에 따라 청에 대한 적개심과 문화적인 우월감으로 인하여 북벌론이 제기되었다.(p.114)

위에 열거한 A~G의 기사처럼, 국사 교과서의 정치사 서술에서 중국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항쟁사 위주이며, 할애하고 있는 서술 분량도 다른 부분에 비해 많은 편이다.²⁵⁾ 문제는 역사적으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항상 적대적이었고, 평화의 시기는 없었는가라는 점이다. 실제로는 한국과 중국에 고대 국가가 성립된 이후 전통 시대가 끝날 때까지, 중국의 국가와 한국의 국가는 비록 국력의 상대적 우열은 있었으나, 상호 독립된 국가 체제를 인정하고 있었으며, 기본적으로 우호적이었다는 사실이다.

과거의 대외 항쟁 위주의 대외관계사 연구가 빠지기 쉬운 또 하나의 함

25) 앞의 〈표 2〉를 참고해 보면, 정치사의 서술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은 자국 중심의 주관적인 해석의 가능성이다. 대외 관계사를 항쟁사의 시각에서 설명할 경우, 과거의 사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거나 국가 간의 총체적인 관계를 객관적으로 밝혀내는 일이 불가능하다. 또한 항쟁사의 시각이 아니더라도 자국을 중심에 두고 외국을 상대화시킬 경우에는 주관적인 역사 해석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모든 분야의 역사연구는 과학적인 방법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대외 관계사에서는 전통 시대의 세계 질서를 설정하여 그 구조를 밝히고, 그 안에서 개별 국가 간의 관계를 연구한다는 확대된 시각이 필요하리라고 본다.²⁶⁾

한 가지 더 지적해야 될 점은 냉전 시기 중국과 한국간의 적대적이고 단절적인 시기의 역사 서술과 수교 이후 상호 우호 시기의 역사서술과 거의 달라진 점이 없다는 사실이다. 현재의 서술은 과거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내용이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그대로 실리고 있다. 그러므로 민족 주체성 강조를 위해 항쟁사 위주로 서술되고 있는 국사 교과서의 서술 방식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북방 민족과의 항쟁사

현재 중국의 영토에 편입되어 있는 만주 지역을 무대로 활동하였던 거란족·여진족과 같은 북방 민족과 관련된 역사를 서술하는데 있어서도 모두 항쟁사 위주이다. 특히 이 부분의 서술은 무려 4페이지에 걸쳐 서술되고 있다. 고려 시대의 역사 서술에서 이 부분이 더욱 부각된다.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는 ① 귀주대첩(1019), ② 몽고의 침입(1231), ③ 홍건적의 침입(1359)을 들 수 있다. 교과서에서 이에 대한 서술의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6) 한국역사교과서연구회 편,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과 일본》, 혜안, 2002, p.139.

A : 귀주대첩 : 여러 차례 소규모의 침입을 시도하던 거란은 다시 10만의 대군으로 침입해왔다. 개경 부근까지 침입해 온 거란은 도처에서 고려군의 저항을 받고 퇴각하던 중 귀주에서 강감찬이 저위하는 고려군에게 섬멸되었다. 이 때 살아서 돌아간 거란의 군사가 수천에 불과할 정도였다. 이를 귀주대첩이라 한다.

고려가 거란의 계속되는 침략을 막아내자 거란은 더 이상 고려를 공격할 수 없었고, 송을 침입할 수도 없었다. 결국 고려가 거란과 싸워서 승리함으로써 고려, 송, 거란 사이에는 세력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었다.

전쟁이 끝난 뒤에 고려는 국방을 강화하는 데 더욱 노력하였다. 강감찬의 주장으로 개경에 나성을 쌓아 도성 수비를 강화하였고, 북쪽 국경 일대에 장성을 쌓아 거란은 물론 여진의 침입까지 방어하려 하였다. 이것이 압록강 어귀에서 동해안의 도련포에 이르는 천리 장성이다.(pp.84-85)

B : 몽고의 침입 : 마침 고려에 왔던 몽고 사신 일행이 귀국하던 길에 국경 지대에서 피살되자 이를 구실로 몽고군이 침입해 왔다. 힘겹게 의주를 점령한 몽고군은 귀주성에서 박시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자 길을 돌려 개경을 포위하였다. 이에 고려는 몽고의 요구를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몽고군도 큰 소득 없이 물러갔다.

그러나 당시 집권자인 최우는 몽고의 무리한 조공 요구와 간섭에 반발하여 강화도로 도읍을 옮기고, 장기 항전을 위한 방비를 강화하였다. 이에 몽고가 다시 침입해 왔으나 처인성(경기 용인)에서 장수 살리타가 김윤후에게 사살되자 퇴각하고 말았다. 이후 고려는 여러 차례의 몽고 침략을 끈질기게 막아 냈다.(중략).....그러나 고려 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하자 대몽 항쟁에 앞장섰던 삼별초는 배중손의 지휘 아래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장기 항전을 계획하고 진도로 옮겨 용장성을 쌓고 저항하였고, 여·몽 연합군의 공격으로 진도가 함락되자 다시 제주도로 가서 김통정의 지휘 아래 계속 항쟁하였다. 이처럼 삼별초의 장기적인 항쟁이 가능하였던 것은 몽고군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리적 이점과 몽고에 굴복하는 것에 반발하는 일반 민중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pp.86-87)

C : 홍건적의 침입 : 한편, 북쪽으로부터 홍건적이 침입해 와 공민왕이 북주(안동)까지 피난하기도 하였고, 남쪽에서는 왜구의 노략질이 계속되어 해안 지방을 황폐하게 하였다. 이에 고려는 적극적으로 남과 북의 외적에 대한 토벌 작전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최영과 이성계는 큰 전과를 올려 국민

의 전망을 얻었다.(p.90)

위의 A~C의 기사에 큰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학생들에게 북방 민족과의 관계가 항상 적대적이었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의 국가와 북방 민족과의 항쟁사는 분명히 구분해서 서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과의 관계는 화해와 더욱 긴밀한 협력으로 나아가고 있는 실정인데, 지나친 항쟁사 위주의 서술은 이러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항쟁사를 통한 민족 주체성의 강조도 필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역사상에서 한중 외교관계와 교류 측면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의 고구려사 문제, 그리고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상호간 화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중국, 한국, 일본이 세 나라에 산재해 있다. 저마다 자국 중심의 역사를 기술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지나친 대외 항쟁사 위주의 기술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2. 문화·경제 분야

전통 시대에 한국의 국가들은 중국의 국가들과 정치 외교적으로 형식적인 종속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동시에 경제 문화적으로는 중국에 기원을 둔 많은 문화 양식들이 경제적 교역이나 인적 교왕을 통해 한국에 전입, 수용되어 한국 전통문화를 형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

가. 중국 중심의 일방적인 교류사 서술

중국 관계 기사 가운데 문화와 관련된 기사 31건을 아래와 같이 분석하여 표를 만들어 보았다.

<표 10> 문화사 서술 분석

시대 구분	선사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계
중국→한국	1	6	6	7	0	0	20(64.5%)
한국→중국		1	1	1	0	0	3(9.7%)
중국을 통한서양 문물의 전래	0	0	0	3	0	0	3(9.7%)
기타	0	2	1	2	0	0	5(16.1%)
계	1(3.2%)	9(29.0%)	8(25.8%)	13(41.9%)	0(0%)	0(0%)	31(100%)

위의 표를 보면, 중국에서 수용한 문화에 대한 서술 내용은 전체 문화와

관련된 기사 가운데 64.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중국으로 전파된 문화나 중국을 통한 서양 문물의 전래는 9.7%에 그치고 있다. 이를 통해서 국사 교과서의 문화사 서술이 중국 중심의 일방적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행 제7차 국사 교과서에서 문화사를 서술하고 있는 기본 관점은 중국으로부터 수용한 문화를 우리 나라에서 독창적으로 발전시켜 일본에 전수해 주었다는 식이다. 그래서 문화·경제 교류사의 서술에 있어서 중국 문화의 일방적인 수용에 관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관한 국사 교과서의 내용을 찾아보면, 적어도 아래와 같이 20여건 정도를 찾을 수 있다.

〈표 11〉 국사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는 중국 문화의 수용 사례

순서	주제	내용
1	한자의 수용	우리 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은 고대부터 한자 문화권을 형성하였으며, 우리 민족은 철기 시대부터 한자를 사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삼국시대의 지배층은 한자를 널리 쓰게 되면서 한문으로 쓰여진 중국의 유교, 불교, 도교의 서적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삼국 시대 사람들은 처음에는 한자를 그대로 사용하여 우리말을 썼으나 뒤에는 이두와 향찰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로써 한문의 토착화가 이루어져 갔으며 한문학이 널리 보급되어 갔다.(p.241)
2	불교의 수용	삼국은 율령을 제정하고 지방 제도와 중앙 조직을 개편하여 왕권의 강화에 힘쓰던 4세기에 불교를 수용하였다. 고구려는 중국의 진진을 통하여 소수림왕 때에 불교를 수용하였고(372), 백제는 동진에서 김류왕 때 불교를 받아들였다(384).(p.243)
3	도교의 전래	삼국에는 도교도 전래되어 산천 숭배나 신선 사상과 결합하여 귀족 사회를 중심으로 환영을 받았다.(p.244)
4	불교의 수용	신라 불교가 성숙해 가는 시기에 많은 승려들은 중국에 가서 새로운 불교를 전수해 왔다. 중국을 넘어 인도에까지 가서 불교

		를 공부하고 오는 승려도 있었다.(p.245)
5	풍수지리설의 수용	한편, 신라 말기의 도선과 같은 승려들은 중국에서 유행한 풍수지리설을 들여왔다.(p.246)
6	무덤양식의 수용	옹진 시기의 고분은 굴식 돌방무덤 또는 널방을 벽돌로 쌓은 벽돌무덤으로 바뀌었다. 벽돌무덤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완전한 형태로 발견된 무령왕릉이 유명하다. (p.252)
7	불상제작법의 수용	삼국은 각기 중국에서 불상 제작법을 받아들이면서도 각각의 독창성을 발휘하였다. 고구려의 연가 7년명 금동 여래 입상은 두꺼운 의상과 긴 얼굴 모습에서 북조 양식을 따르고 있으나 강인한 인상과 온은한 미소에는 고구려의 독창성이 보인다.(p.256)
8	성리학의 전래	고려 후기에는 성리학이 전래되어 사상계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부분에 걸쳐 큰 영향을 주었다. 남송의 주희가 집대성한 성리학은 종래 자구의 해석에 힘쓰던 한당의 훈고학이나 사장 중심의 유학과는 달리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 문제를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신유학이었다. 고려에 성리학을 처음 소개한 사람은 충렬왕 때 안향이였다. 그 후 백이정이 직접 원에 가서 성리학을 배워 와 이제현과 박충좌 등에게 전수하였다. 충선왕 때 이제현은 원의 수도에 설립된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였다. 그는 귀국한 후에 이색 등에게 영향을 주어 성리학 전파에 이바지하였다. 공민왕 때 이색은 정몽주, 권근, 정도전 등을 가르쳐 성리학을 더욱 확산시켰다. 성리학을 수용한 사람들은 대부분 신진 사대부였다. 이들은 현실 사회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개혁 사상으로 성리학을 받아들였으며, 성리학의 형이상학적 측면보다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실천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유교적인 생활 관습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학과 주자가례를 중시하고 권문세족과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였다. 이후 고려의 정신적 지주였던 불교는 쇠퇴하게 되었고 성리학이 새로운 국가 사회의 지도 이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pp.267-268)
9	과학기술의 수용	고려 시대에는 고대 사회의 전통적 과학 기술을 계승하고 중국과 이슬람의 과학 기술도 수용하여 이 분야에서 많은 중요한 업적을 이룩하였다.(p.274)

10	농서, 목화씨의 수입	고려 후기에는 중국의 농서를 도입하여 이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암은 원의 농상집요를 소개 보급하였는데 이는 농어 기술에 대한 학문적 연구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공민왕 때 문익점이 원에서 목화씨를 들여왔으며, 이로써 목화 재배가 고려 말에 시작되어 의생활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p.277)
11	자기 기술의 수용	고려 자기는 신라와 발해의 전통과 기술을 토대로 송의 자기 기술을 받아들여 귀족 사회의 전성기인 11세기에 독자적인 경지를 개척하였다. 자기 중에서 가장 이름난 것은 비취색이 나는 청자인데, 중국인들도 천하의 명품으로 손꼽았다.(p.283)
12	송에서 음악과 악기 수입	고려 시대의 음악은 크게 아악과 향악으로 구분된다. 아악은 송에서 수입된 대성악이 궁중 음악으로 발전된 것으로 오늘날까지도 격조 높은 전통 음악을 이루고 있다. 속악이라고도 하는 향악은 우리의 고유 음악이 당악의 영향을 받아 발달한 것인데, 당시 유행한 민중의 속요와 어울려 수많은 곡을 낳았다. 동동, 한림별곡, 대동강 등의 곡이 유명하였다. 악기는 전래의 우리 악기에 송의 악기가 수입되어 약 40종이나 되었다고 한다.(pp.284-285)
13	과학기술의 수용	(조선시대에도) 우리 나라의 전통적 문화를 계승하면서 서역과 중국의 과학 기술을 수용하여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p.298)
14	농업기술의 수용	세종 때 정초 등이 편찬한 농사직설은 우리 나라에서 편찬된 최초의 농서로서 중국의 농업 기술을 수용하면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농법을 정리하였다.(p.300)
15	백자 기술의 수용	조선의 백자는 고려 백자의 전통을 잇고 명나라 백자의 영향을 받아 이전보다 질적인 발전을 이루었다.(p.305)
16	화풍의 수용	15세기 그림은 도화서에 소속된 화원들의 그림과 관료이자 문인이었던 선비들의 그림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중국 역대 화풍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소화하여 우리의 독자적인 화풍을 개발하였다.(p.305)
17	고증학의 수용	그 후 실학은 농업 중심의 개혁론,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 국학 연구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으며, 이 때 청에서 전해진 고증학과 서양 과학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p.313)

18	지도제작 법의 수용	중국으로부터 서양식 지도가 전해짐에 따라 정밀하고 과학적인 지도가 많이 제작되었고, 그 중에서도 정상기와 김정호가 만든 지도가 우수한 것으로 꼽히고 있다.(p.317)
19	서양문물 의 수용	조선후기에는 전통적 과학 기술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중국을 통하여 전래된 서양의 과학 기술을 수용하여 과학 기술면에서도 큰 진전이 있었다. 서양문물은 17세기경부터 중국을 왕래하던 사신들을 통해서 들어왔다. 선조 때 이광정은 세계지도를, 인조 때 정두원은 화포·천리경·자명종 등을 전하였다. 당시 명·청의 수도에는 서양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조선의 사신들은 베이징에서 이들과 접촉하여 서양 문물을 소개받았다.(p.318)
20	역법,수학, 지도의 수용	역법은 김육 등의 노력으로 시헌력이 어렵게 도입되었다. 이는 서양 선교사인 아담 샬이 중심이 되어 만든 것으로 청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었는데 종전의 역법보다 한 걸음 더 발전한 것이었다. 조선에서는 약 60여 년간의 노력 끝에 시헌력을 채용하였던 것이다. 수학에서도 마테오 리치가 유클리드 기하학을 한문으로 번역한 기하원본이 도입되었다. 홍대용은 주해수용을 저술하여 우리나라, 중국, 서양 수학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였다. 서양 선교사들이 만든 곤여만국전도와 같은 세계 지도가 중국을 통하여 전해짐으로써 지리학에서도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고, 지도 제작에서도 더 정확한 지도가 만들어졌다. 이를 통하여 조선 사람들의 세계관이 확대될 수 있었다.(p.319)

위의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중국 문화의 한국으로의 수용과 관련된 기사는 무려 20여건 이상이며 비교적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서양 문물이 중국을 통해 우리 나라로 수용된 경우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의 문화가 일본에 전파되어 일본의 고대 문화 성립과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일본으로 건너간 우리

문화'라는 제목의 장을 두어 삼국 문화와 통일 신라 문화가 일본에 전파된 것을 매우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²⁷⁾

이상의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문제점은 현행 국사 교과서의 문화 교류사 서술이 중국→한국→일본 식의 일방적인 서술로 일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과 발전은 중국인들의 창조적 역량의 산물이 중국 바깥으로까지 확산된 결과라고 믿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문화는 그 고유한 가치를 갖는다는 역사적 사실을 철저히 무시하는 입장에 기초를 두고 있다. 두 이질적 문화가 만나면 보다 우수한 문화만이 살아남고 보다 저급한 문화는 소멸된다거나, 중국에 기원을 둔 문화만이 살아남고 비중국적 요소는 소멸된다는 선입견은 역사적 사실로서 입증되지 않는다. 역사에서는 오로지 문화의 융합만이 확인될 뿐이다. 융합이란 두 문화가 만나서 어느 한 문화만 남고 다른 문화는 소멸되는 일방적 현상이 아니라, 두 문화가 모두 발전적으로 소멸되어 제3의 문화가 새로 창출되는 현상이다. 또한 동아시아인들이 공유한 문화 가운데는 중국에 기원을 두지 않은 요소들도 많이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 기원을 둔 것으로 상식화된 요소들 가운데도 보다 엄격한 학문적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적지 않다.²⁸⁾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한다는 이유로 정치사를 서술하는 데 있어 대외 항쟁사를 강조했던 것과 달리, 중국과 한국과의 문화교류 서술에 있어서는 중국 일변도의 교류만을 강조하는 것은 다소 모순적이다. 따라서 비록 일부일지는 몰라도, 우리 나라 문화가 중국으로 전입된 사례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일본이나 북방 민족과의 문화·경제

27) 국사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7차)》, 두산, 2002, pp.260-261.

28) 예컨대 道敎와 같은 것은 지금까지는 중국의 대표적 문화양식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지만, 도교를 구성한 제 요소들의 기원을 정밀하게 분석하면 그 대부분이 비중국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참고 김한규, 앞의 책, pp.32-34).

교류에 대한 서술에서도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현행 국사 교과서에서 우리 문화의 중국 전입에 대해 서술한 경우를 찾아보면 아래와 같다.

A : 발해에서는 자기 공예가 독특하게 발전하였다. 발해의 자기는 가볍고 광택이 있는데 그 종류나 크기, 모양, 색깔 등이 매우 다양하였다. 당시 당나라 사람들도 그 우수함을 인정하여 수입해 갔다고 한다.(p.257)

B : 고려 사람이 몽고에 건너간 수도 적지 않았다. 이들은 전란 중에 포로 내지는 유이민으로 들어갔거나 몽고의 강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끌려간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이들 고려 사람들에 의하여 고려의 의복, 그릇, 음식 등의 풍습이 몽고에 전해졌다.(pp.207-208)

C : 고려의 대외 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송과의 무역이었다. 고려는 서해안이 해로를 통하여 송으로부터 왕실과 귀족의 수요품을 수입하는 대신에 종이, 인삼 등 수공업품과 토산물을 수출하였다. 특히, 고려의 종이와 벽은 질이 뛰어나 송의 문인들이 귀하게 여겼으므로 비싼 값으로 수출되었다.(p.156)

위의 A~C 사례에 나타난 약간을 제외하면, 현행 국사 교과서에는 우리 문화의 중국 전파에 관한 내용이 거의 기재되지 않았다. 그러나 학계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중국으로 전입된 한국 문화와 관련한 기록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김한규의 《한중관계사》에서는 ① 한국 토착의 경험의술(經驗醫術)에서 채득한 특유의 약초요법(藥草療法)과 독자적 의학(醫學)에 관한 서적의 중국 전입, ② 백제악, 고구려악 등 음악의 중국 전입, ③ 신라시대 조각품 ‘만불산(萬佛山)’의 중국 전입, ④ 신라승 김교각의 중국에서의 활동, ⑤ 북방에 영향을 미친 고려의 복식, ⑥ 문화용품 가운데 하나인 접는 부채의 중국 전입 등을 소개하고 있다. 게다가 신라·당시대에 중국에서 활약한 한국 불승들의 왕성한 역경과 흥법, 교화 활동을 고려하지 않

는다면, 당대 중국불교의 만개를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한국인들의 창조적 문화역량이 다방면에서 작용하여 성취된 ‘동아시아 문화’를 중국인들이 수용하여 향유한 측면이 결코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중 문화교류사에 대한 기왕의 연구는 대체로 ‘중국 문화의 한국 유입’이나 ‘한국문화에 미친 중국문화의 영향’이라는 측면에서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국사 교과서의 문화사 서술에서도 이러한 관점이 주로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중국문화와 한국문화 및 동아시아 문화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였다.²⁹⁾

필자는 국사 교과서에 우리 문화의 중국 전파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 구체적인 사례를 어느 정도 언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록 중국에 비해 규모가 작고 인구가 적은 나라였기 때문에 문화의 창조력이 질과 양에 있어서 중국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전통 시대 우리 문화의 중국 전파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수정, 보완을 통하여 한중문화사를 서술함에 있어서 문화의 상호 교류 측면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전통적 한국문화와 중국문화는 그 환경과 조건이 상이하여 질적·양적인 면에서 일정한 격차가 있었다 하더라도, 전통 시대의 한국인들은 그들이 처한 환경의 한계를 넘어 놀라운 문화적 창조력을 발휘하였고, 그 결과 객관적 조건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의 문화를 창조하여 중국 등 외국의 문화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중국문화 등 외국문화를 수용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문화적 역량을 발휘하여 제3의 문화를 재창조함으로써, 고대 동아시아인들이 공동으로 향유할 문화의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³⁰⁾

그러므로 국사 교과서에서는 중국에서 전래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나라에

29) 김한규, 앞의 책, 1999, pp.37-38.

30) 김한규, 앞의 책, p.353.

서 독창적으로 더 발전시킨 문화를 서술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역량을 국사 교과서에 서술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우리 문화의 자부심을 일깨워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사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자.

A : 한국 불교는 현세 구복적이고 호국적인 성향이 남달리 강하며, 한국 유교는 삼강오륜의 덕목 중에서도 충, 효, 의가 강조되었다. 이는 우리 조상이 가족 질서에 대한 헌신과 국가 수호, 그리고 사회 정의 실현에 특별한 애정을 지녔음을 보여 주는 것이며, 조선 시대 유학자들이 비타협적이고 배타적 경향이 큰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중국의 유학이 인(仁)을 중심 개념으로 설정하고 사회적 관용을 존중하는 것과 대비되는 것이다.(p.14)

B : 성리학 : 성리학이 조선 사회에 확고하게 뿌리내리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인물은 이황과 이이였다. 이황은 주자서절요, 성학십도 등을 저술하였으며 주자의 이론에 조선의 현실을 반영시켜 나름대로의 체계를 세우려고 하였다. 그의 사상은 도덕적 행위의 근거로서 인간의 심성을 중시하고 근본적이며 이상주의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이황의 사상은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 전해져 일본의 성리학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다.(pp.293-294)

C : 고려 자기 : 고려 자기는 신라와 발해의 전통과 기술을 토대로 송의 자기 기술을 받아들여 귀족 사회의 전성기인 11세기에 독자적인 경지를 개척하였다. 자기 중에서 가장 이름난 것은 비취색이 나는 청자인데, 중국인들도 천하의 명품으로 손꼽았다.(p.283)

D : 음악 : 고려 시대의 음악은 크게 아악과 향악으로 구분된다. 아악은 송에서 수입된 대성악이 궁중 음악으로 발전된 것으로 오늘날까지도 격조 높은 전통 음악을 이루고 있다. 속악이라고도 하는 향악은 우리의 고유 음악이 당악의 영향을 받아 발달한 것인데, 당시 유행한 민중의 속요와 어울려 수많은 곡을 낳았다. 농동, 한림별곡, 대동강 등의 곡이 유명하였다. 악기는 전래의 우리 악기에 송의 악기가 수입되어 약 40

어 종이나 되었다고 한다.(pp.284-285)

E : 인쇄술 : 고려 시대의 기술학에서 가장 뛰어난 것은 인쇄술의 발달이었다. 건국 초기부터 개경과 서경에 도서관을 설치하고 많은 책들을 수집 보관하였다. 그리하여 수만 권의 진기한 책들이 보관되었고 송에서도 구하여 갈 정도였다. 또한 각종 책의 수요가 증가하여 서적포에서 새로이 책을 인쇄하기도 하였다.(p.275)

우선 A 기사의 경우처럼 ‘대승불교(大乘佛敎)’도 한중 불교문화의 융합을 통해 창출된 문화적 산물이었다. 불교는 인도에서 발생하여 중국을 경유, 한국으로 유입되었지만, 한국의 문화적 풍토에 맞도록 재해석된 다음에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 중국화한 불교와 융합되었다. B기사의 ‘성리학(性理學)’을 들 수 있다. 성리학은 중국에서 수입되었지만, 우리 나라에서 더욱 발전하였고, 일본에 미친 영향도 크다. C기사의 ‘고려 자기(高麗磁器)’도 송으로부터 기술을 받아들인 것이지만, 우리 나라의 비취색과 상감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청자는 매우 훌륭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D기사의 ‘아악(雅樂)’과 ‘향악(鄕樂)’경우처럼 음악의 경우에도, 송에서 수입되었지만 우리 나라에서 발전된 것이다. E의 기사 ‘인쇄술(印刷術)’의 발전 과정은 한국과 중국문화의 접촉과 융합이 동아시아 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어떻게 기여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의 하나였다.³¹⁾ 그나마 중국 문화가 한국에 유입되어 창조 계승된 기사는 앞서 지적한 한국 문화의 중국 전파에 비해 비교적 잘 설명하고 있다.

문화사를 서술함에 있어서 이러한 중국 문화의 전입, 우리 문화의 중국 전파, 상호교류와 융합의 측면이 적절하게 서술되고, 현재 국사 교과서에서 서술되고 있는 중국 중심의 일방적 문화 서술 방식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서술 방식은 우리 나라는 역사상의 문화 교류에 있어서 ‘건

31) 김한규, 앞의 책, p.37.

널목'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만 보는 식민사관의 잔재일지도 모른다.³²⁾ 그러므로 향후 교과서 개편시에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나. 문화·경제 교류의 부분 누락

제7차 교과서에서 비중이 커진 것은 경제사와 사회사 분야이다. 제6차 국사 교과서에서는 이 부분이 '사회와 경제' 또는 '경제와 사회'라고 하여 하나의 단원으로 합쳐져 있던 것이었는데, 최근 교과서에서는 경제사와 사회사가 각기 대단원으로 분리 독립되었고, 항목의 수도 최근 교과서에서는 더 늘어났다.

내용에 있어서는 각 시대 별로 경제정책과 경제활동으로 나누어 체계를 잡아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특히 경제활동 부분은 귀족생활과 농민생활, 양반지주의 생활과 농민생활과 같이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경제생활을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서술하여 그 차이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³³⁾

그런데 현행 교과서에서도 경제·문화 교류의 누락 사례가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단지 두 가지 정도를 지적하겠다. 한사군(漢四郡)을 통한 중국 문화의 유입, 북방 민족과의 문화 교류가 그것이다.

32) 이성시, <한일 역사 교과서의 고대사 서술을 둘러싸고>, 당대비평 특별호, 《기억과 역사의 투쟁》, 삼인, 2002, p.143 참고.

33) 경제사의 경우 한 개에서 두 개로, 또는 두 개에서 세 개로 늘었다. 분량 면에서도 그 전보다 더 늘어났다. 고대 부분이 5페이지에서 10페이지로, 중세 부분이 6페이지에서 12페이지로, 근세 부분이 8페이지에서 12페이지로 각각 늘어났다. 그러나 경제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산력 부분이 경제사 분야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송규진, <국정 국사교과서의 경제사 인식 및 서술 검토>, 《21세기 한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의 방향》, 일본교과서 바로잡기 운동본부 주최 심포지움 자료집, 2002, p.69).

(1) 한사군을 통한 중국 문화의 유입

기존 학계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한사군'이라 불린 고대 중국의 동방군현 조직은 기원전 108년에 설치되어 기원전 313년에 소멸될 때까지 400여 년 간 요동에 존속하면서, 동북아의 문화적 통로로 작용하였다. 한사군을 통한 중국문화의 유입은 한국의 토착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고, 동시에 중국 군현민과 한국인들과의 활발한 교역을 통해 한국의 적지 않은 물자가 중국의 변군과 내지로 유입되어 중국 고대문화의 발전에 일조하였다고 한다.³⁴⁾

한사군의 설치는 중국을 통로로 한 요동과 사천의 교역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한사군의 설치는 한국과 요동 지역사회의 계급을 분화시키고 빈부의 분화도 초래하였다. 《한서(漢書)》 권28 지리지에서는 한사군을 통한 인적 교왕이 요동과 한국사회의 분화에 영향을 미친 과정을 설명하였다. 즉 조선 지역의 토착사회에 원래는 범금팔조(法禁八條)만 있었는데 군현(郡縣)이 설치된 뒤에는 60여 조로 늘어났다고 함은 한사군의 설치로 인해 조선인 사회에 사유재산제와 빈부 분화가 신속하게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한사군의 설치에 따른 중국 문화의 유입은 한사군 설치지역에만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라, 한반도 중남부의 한국(韓國)에까지 미쳤다.³⁵⁾

한사군 문화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것은 '낙랑 문화(樂浪文化)'라 일컫는 평양의 유적으로, 이른바 낙랑문화는 한인 유이민들에 의해 전래된 중국 문화의 대표적 자취다. 낙랑군 유지(遺址)에서 발굴된 칠기(漆器) 가운데는 '자동(子同)' 즉 사천채동(四川梓潼)을 가리키는 명문이 있어, 사천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낙랑군에까지 판매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황해도

34) 김한규, 앞의 책, pp.146-147.

35) 김한규, 앞의 책, pp.152-153.

장산곶 부근의 몽금포 유지(遺址)에서는 한식(漢式)의 철부(鐵斧)와 야철(冶鐵)의 유적이 발굴되었는데, 이 곳은 당시 중국과 요동간의 교역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였던 곳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한사군을 통한 중요교역(中遼交易)의 범위가 사군(四郡)의 설치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국에까지 확대되었음은 경상남도 김해패총에서 왕망(王莽) 원봉(元鳳) 원년에 주조된 하천의 발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한사군(혹은 낙랑군)을 통한 한문화의 유입은 요동지역 토착사회의 문화 발전과 한반도 중남부의 韓國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것이었음에도 고대 문화의 기술에서 이러한 부분을 전혀 서술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대안교과서인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I II》에서는 낙랑 문화의 대표적 유물인 금제 버클 사진을 실고, 설명을 곁들여 낙랑 문화를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³⁶⁾ 현행 국사 교과서에서도 한사군을 통한 문화의 유입에 대해서 이런 정도나마 간단한 소개는 필요하다.

(2) 북방민족과의 문화교류

중국과의 교류말고도 북방 민족과의 문화교류 측면을 부각시켜 서술하는 것도 문화사 서술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북방 민족이었던 거란과 여진의 사례에 제한하여 간략히 알아보자. 무역관계를 다른 지도에서는 거란과 여진을 상대로 한 무역에서 수입되거나 수출된 교역물품들이 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상생활과 관련된 교류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원래 거란과 여진의 사회와 문화는 고려의 그것에 비해 매우 후진적이었기 때문에, 특히 요·금의 건국 전에는 고려의 사회와 문화로부터 많은 영향

36)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I》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 나라는 우리 땅에 다시는 강력한 나라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4개의 군을 두어 중국식으로 다스렸다. 이에 우리 민족은 임둔, 진번, 현도군을 일찌감치 몰아내고, 마지막까지 버틴 낙랑군은 고구려가 마침표를 찍었다(전국역사교사모임,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I II》, 휴머니스트, 2002, p.41).”

을 받았다. 특히 고려와 인접한 여진의 경우, 고려와의 문화교류를 통해 농경사회로 발전하고 정치적 통합을 이루는 데 필요한 문화적·경제적 기초를 구축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다. 원래 목축을 주산업으로 한 여진은 1042년부터 고려로부터 많은 경우(耕牛)를 수입함으로써 비로소 우경(耦耕) 단계에서 우경(牛耕) 단계로 발전할 수 있었다. 또한 그들은 10세기 말엽부터 11세기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석죽(石鋤)을 사용하였으나, 그 뒤 인접한 고려로부터 철과 야철술을 도입함으로써, 병기의 획기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여진 거주지역에서도 금이 생산되었으나, 초기에는 원료를 고려로 수출하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고려로부터 야금술을 배운 뒤부터는 경제적 발전에 크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일들은 여진족의 생산 역량을 급속히 증대시켜, 그들 사회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거란은 요 건국 전에는 여진을 사이에 두고 고려와 격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진만큼 고려에 의존하는 바가 크지는 않았지만, 요 건국 후에는 고려와의 공무역을 통해 고려의 물자와 문화를 적극 애호하였다.

대체로 보아, 중국에 대한 고대 한국 문화의 영향이 종교·문학·예술·과학 등 주로 고급한 문화 부문에서 이루어졌다면, 요동에 대한 고대 한국 문화의 영향은 주로 일상 생활과 생산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그렇다고 해서 요동에는 한국의 고급문화가 전입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요동에 대해서도 고대의 한국문화는 불학·의학·예술 등 제 방면에서 영향을 미쳤다. 북방 거란의 경우, 송과 서적을 교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국에 없는 서적을 고려에 와서 찾았다.

여진도 여러 차례 고려에서 화서(畵書)를 찾아, 자국의 학술과 예술을 발전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여진은 의술 방면에서도 고려의 의술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여진의 의술은 고려로부터 전입되었고, 최초의 의

생(醫生)도 고려인이었다. 제조기술 방면에서도 한국은 요동 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거란과 여진이 요동을 점거한 시기에는, 거의 일방적으로 한국의 문화가 요동으로 전입되었다. 이 시기 요동 문화의 한국 전입은 유일하게 건축 분야에서 그 흔적이 발견될 뿐이다.

한편 북방으로부터 한국에 전파된 요동의 의식주 문화 가운데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요동지방의 특징적인 주거양식인 '온돌'의 한국 전입이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요동지방에는 온돌과 유사한 난방시설과 그 관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비록 약간의 양식상 차이는 있지만, 요동인들이 중국인과 달리 온돌이라는 난방시설을 사용한 것이 한국으로 전입된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온돌로 인하여 매우 폐쇄적인 집이 지어짐으로써 한국의 건축은 중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모습의 배치와 평면을 구현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은 온돌의 사용을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요소의 하나로 자부하고 이러한 문화요소가 요동으로 수출되어 간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추운 지방인 요동 방면에서 먼저 온돌이 개발되어 한국으로 남전(南傳)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³⁷⁾

필자는 국사 교과서에 중국의 문화와 북방 민족의 문화와 관련시켜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중국문화의 수용, 한국문화의 독창적 발전, 북방 문화와의 교류 등의 소항목을 설정하여 서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37) 김한규, 앞의 책, pp.491-500.

V. 결론

현행 제7차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중국 관계 내용을 살펴보면, 이전보다 다소 보완되고 나아진 서술이 있는 반면, 여전히 일부 역사 사실에 있어서는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나 더 첨가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필자가 이 국사 교과서에 서술된 중국 관계 기사를 분석해 본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주요 용어와 구성상의 문제점 및 내용상의 문제점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우선 주요 용어상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중국’이라는 명칭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가 없어 국가명·왕조명 등과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둘째, 왕조명과 지역명의 경우도 표기나 발음에 있어 일관성이 없다.

구성상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시대별 불균형을 들 수 있다. 선행 연구자들이 이미 지적했듯이, 고대나 중세 시기의 사건들에 비해, 근현대의 주요 사건들은 매우 소략하게 서술되어 있다. 둘째, 주제 영역별 불균형을 들 수 있다. 정치사 영역의 서술은 비교적 체계적이지만, 문화사 부분은 매우 단편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다음으로, 내용상의 문제점은 정치·외교 분야와 문화·경제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정치·외교면에서는 첫째, 역사의 전개나 문화의 형성을 논할 때 주변 국가들과 관련을 지어 설명하는 것이 극히 적다는 것이다. 둘째, 한중 관계사에 있어서 대부분이 평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는 민족 주체성의 확립을 목적으로 중국과의 항쟁의 역사를 강조하는 경향이 많아,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역사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북방 민족과의 역사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도 온통 침입과 방어의 역사뿐인데, 이러한 침략과 방어의 측면 말고 상호 교류 측면도 고루 서술해야 할

것이다.

문화경제면에서는 첫째, 국사 교과서에서 문화경제 교류를 서술하는 관점이 너무 중국 중심의 일방적이라는 것이다. 원래 문화경제 교류라는 것은 상호적인 것이므로,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문화를 한국이 일본에 전파해 주었다는 단순한 서술 방식은 교류 자체가 가진 특성을 간과한 것이다. 둘째, 북방 민족과의 문화경제 교류나 한사군을 통한 선진문물의 유입 등도 거의 서술하지 않았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통해 문화경제 방면의 서술을 좀 더 균형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필자 나름대로의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주요 용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현재 국사 교과서의 다소 산만한 표기법을 고쳐야 할 것이다.

둘째, 시대적으로는 전근대사에 편중되어 있는 중국 관계 내용을 좀 더 균형적으로 서술해야 하고, 정치 영역만 자세하게 서술할 것이 아니라, 다른 측면의 서술에도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중국 관계 기사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외 항쟁사 관련 서술을 축소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일방적이고 단순한 문화사의 서술 방식을 지양하고, 교류의 측면이 부각될 수 있는 입체적인 서술을 해야 할 것이다.

21세기의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자국 중심의 역사만을 고집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족주의를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독립적이고 단절적으로 사고하여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역사적 콤플렉스를 민족주의로 규정하거나, 고대사를 강화하고 근현대사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을 국가주의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착각하는 것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 모두 자신의 역사교과서에 담겨 있는 왜곡된

역사인식을 비판하고 바로잡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 간, 민족 간에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웃 나라의 역사와 역사인식을 깊이 이해해보는 기회를 갖고, 주변 나라를 보는 시각은 바람직한지 반성해 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역사 교과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의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국사 교과서의 국검정제를 대폭 수정하거나 자유 발행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에 자민족 중심의 국가 중심적인 시각을 반영하는 역사 서술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는 교과서의 발행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과 그 의미는 역사를 연구하고 서술하는 역사가에 의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국정체제로 서술하고 있는 현재의 교과서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동아시아 여러 나라가 공동교과서를 집필하는 시도도 의미 있는 한 방법일 것이다. 왜냐하면 역사학계의 획일적 대안을 극복하고, 21세기 아시아 평화를 위한 '연대'의 관점에서 역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전체의 시각에서 국사를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외국 의 사례(서유럽)를 통하여 동아시아에서도 공동의 역사교과서가 가능할 것 인가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I. 기본 자료

- 국사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7차)》, 두산, 2002.
국사편찬위원회, 《중학교 국사(7차)》,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2.
국사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 상·하(6차)》,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6.
국사편찬위원회, 《중학교 국사 상·하(6차)》,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6.
전국역사교사모임,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I II》, 휴머니스트, 2002.

II. 저서

- 김한규, 《한중관계사 I II》, 아르케, 1999.
도광순, 《동아시아문화와 한국문화》, 교문사, 1988.
당대비평 특별호, 《기억과 역사의 투쟁》, 삼인, 2002.
변인석 외, 《중국과 동아시아세계》, 국학자료원, 1997.
변태섭, 《한국사통론》, 삼영사, 2002.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역사문제연구소, 《화해와 반성을 위한 동아시아 역사인식》, 역사비평사, 2002.
양호환 외, 《역사교육의 이론과 방법》, 삼지원, 2002.
임지현·이성시 엮음,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 휴머니스트, 2004.
하세봉, 《동아시아 역사학의 생산과 유통》, 아세아문화사, 2001.
한국역사교과서연구회 편,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과 일본》, 혜안, 2002.
호준해, 《중국 안의 한국 독립 운동》, 단국대학교 출판부, 1978.

III. 논문

1.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 관련 논문

- 권오현, 〈조선총독부편찬 ‘외국역사교과서’의 분석적 검토〉, 《역사교육논집》 23·24, 1999.
- 김승렬, 〈숙적관계에서 협력관계로 : 독일-프랑스 역사교과서 협의〉, 《역사와 경계》 49, 2003.
- 김유경, 〈기억을 둘러싼 갈등과 화해-독일·프랑스 및 독일·폴란드의 역사교과서 협의〉, 《역사비평》 여름, 2002.
- 김한중, 〈국사 교과서 연구의 성과와 과제〉, 《경상사학》 7·8, 1992.
- 김한중, 〈국사 교과서 연구의 최근 동향〉, 《사회과학교육연구》 5, 2002.
- 남상구,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를 보는 눈〉, 《역사연구》 9, 2001.
- 민경현, 〈한국세계사 교과서의 러시아사 서술〉, 《사총》 45, 1996.
- 민두기, 〈현대중국에 있어서 교과서와 시대상황-1920년대 말, 1930년대 초의 초등학교 교과서의 내용 분석-〉, 《동양사학연구》 40, 1992.
- 박금혜, 〈中國史教科書에 나타난 韓國史敍述〉 《역사교육》 54, 1993.
- 박정수, 〈중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서술된 중국 관련 내용의 조사분석〉, 경북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박준수, 〈국사교육에 있어서 중국 관계의 인식〉, 《춘천교대민족교육연구》 7, 1991.
- 송진숙, 〈한·중 중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분석적 고찰-한·중 관련 서술내용을 중심으로-〉, 이화여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우인수,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내용 분석〉, 《역사교육》 84, 2002.
- 유용태, 〈제7차 중학교 검정 사회교과서 아시아 전근대사 분석〉, 《역사교육》 50, 2000.
- 유용태, 〈집단주의는 아시아문화인가:유교자본주의론 비판〉, 《경제와 사회》 봄, 2001.
- 윤세철, 〈中學校 國史教科書에 있어 中國史 敍述問題〉, 《역사교육》 37·38, 1985.
- 이아현, 〈역사교과서를 통해 본 일본군 ‘위안부’문제〉, 《한일민족문제연구》 2집, 2002
- 이충호, 〈일본역사교과서 분석-임진왜란에 대한 서술 내용을 중심으로

- > , 《역사교육논집》 23-24, 1999.
- 정선영, 〈우리 나라 역사 교과서 정책의 현황 및 개선 방향〉, 《교육연구논총》 23-3, 2002.
- 정재정, 〈일본의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에 서술된 한국사상〉, 《역사와 현실》 5, 1990.
- 정재정,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역사교과서와 한국관련 서술의 문제점〉, 《한국사연구회》, 2001.
- 정재정,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와 그 전망〉, 《한국사연구》 116, 2002
- 정태현,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근현대사 내용 분석〉, 《사총》 45, 1996.
- 한운석, 〈역사교과서 수정을 통한 독일-폴란드 간의 화해노력〉, 《서양사론》 제75호, 2002.
- 함성광, 〈중일 양국의 초·중고교 역사교과서상의 한국사에 관한 서술문제 연구〉, 고려대학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0.

2. 한중 관계사 논문

- 강석화, 〈백두산 정계비와 간도〉, 《한국사연구》 96, 1996.
- 권혁수, 〈이홍장의 위기의식과 조선에 대한 문호개방 권고〉, 《19세기말 한중 관계사 연구》, 백산자료원, 2000.
- 김기혁, 〈개항을 둘러싼 국제정치〉, 《한국사시민강좌》 7, 일조각, 1990.
- 김달중, 〈중국의 대한간섭 및 통제정책 : 1880년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집》, 1981.
- 김시대, 〈황준헌의 ‘조선책략’이 한말정국에 끼친 영향〉, 《사총》, 1963.
- 김원수, 〈청일전쟁 및 삼국간섭과 러시아의 대한정책〉, 《한러관계 100년사》, 한국사연구협의회, 1984.
- 김영희, 〈대한제국시기 개신유학자들의 언론사상과 양계초〉, 《한국언론학보》 43-4, 1999.
- 구선희, 〈청일전쟁과 조·청 관계〉, 《한국 근대 대청정책사 연구》, 혜안, 1999.

- 민두기, 〈19세기 후반 조선 왕조의 대외 위기의식〉, 《시간과의 경쟁》,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1.
- 박영재, 〈메이지 일본의 한국 인식〉, 《강좌 한일관계사》, 현음사, 1994.
- 박영재, 〈근대 일본의 침략주의적 대외론과 한국론〉, 《한국사시민강좌》 19, 1996.
- 배경한, 〈손문의 '대아시아주의'와 한국〉, 《부산사학》 30, 1995.
- 배경한, 〈상해·남경지역의 초기(1911-1913) 한인망명자들과 신해혁명〉, 《동양사학연구》 67, 1999.
- 백영서, 〈대한제국기 한국언론의 중국 인식〉, 《역사학보》 153, 1997.
- 신기석, 〈청한중속관계-임오군란을 전후한〉, 《아세아연구》, 1959.
- 신승하, 〈구한말 애국계몽운동시기 양계초 문장의 전입과 그 영향〉, 《아세아연구》, 1998.
- 양규송, 〈중국의 한국전 출병 시말〉, 《한국전쟁과 중국》, 백산서당, 2001.
- 오경평, 〈항전시기에 한국 임시정부의 승인에 대해 중국 국민 정부가 가졌던 태도에 대하여〉, 《동방학지》, 1996.
- 이양자, 〈청의 대조선경제정책과 원세개〉, 《부대사학》, 1982.
- 전해중, 〈중국과 한국〉, 《동방학지》, 1968.
- 전해중, 〈청대 한-중관계의 일고찰〉, 《동양학》, 1971.
- 정옥자, 〈19세기 존화사상의 역사적 성격〉, 《상상》 여름, 1994.
- 최문형, 〈열강의 대한 정책에 대한 일연구-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92, 1981.
- 최석완, 〈일본정부의 동아시아질서 재편정책과 청일전쟁〉, 《동양사학연구》 65, 1999.
- 최소자, 〈청과 조선 : 명칭교체기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에서〉, 《명청시대 중한 관계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7.
- 최소자, 〈청조의 대조선정책-옹정년간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역사의 환류》, 지식산업사, 2002.
- 한철호, 〈1930년대 전반기 한중연대와 항일운동〉, 《중국에서의 한국독립운동》, 2002.

- 한규무, 〈‘중국조선상민수륙무역장정’(1882)과 청·조선간 종속관계의 명문화〉, 《한국사학논총-조선시대편·근현대편》(하), 일조각, 1994.
- 한규무, 〈청·조선간 종속관계의 변화와 열강의 태도〉, 《근대중국연구》, 2000.
- 한석정, 〈동아시아 국가 만들기의 연결 고리 : 만주국, 1932-1940〉, 《중국사연구》 16, 2001.
- 황민호, 〈1920년대 후반 재만한인에 대한 중국당국의 정책과 한인사회의 대응〉, 《한국사연구》 90, 1995.
- 황민호, 〈1930년대 재만한인사회주의자들과 중국공산당의 합동에 관한 연구〉, 《역사학보》 141, 1994.

· 부록 : 중국 관계 기사 일람표

I. 사건 관련 기사

1. 정치

순서	시대	주요 내용	국사 교과서 본문의 서술 내용
1	선사	위만의 집권	중국이 전국 시대 이후로 혼란에 휩싸이게 되자 유이민들이 대거 고조선으로 넘어오게 되었다. 고조선은 그들을 받아들여 서쪽 지역에 살게 하였다. 그 뒤 진한 교체기에 또 한 차례의 유이민 집단이 이주해 왔다. 그 중 위만은 1,000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으로 들어왔다. 위만은 준왕의 신임을 받아 서쪽 변경을 수비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는 그 곳에 거주하는 이주민 세력을 통솔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점차 확대하여 나갔다. 그 후 위만은 수도인 왕검성에 쳐들어가 준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B.C.194).(36)
2	선사	한 무제의 침략	이에 불안을 느낀 한의 무제는 수륙 양면으로 대규모 침략을 감행하였다. 고조선은 1차의 집전(패수)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이후 약 1년에 걸쳐 한의 군대에 맞서 완강하게 대항하였다. 그러나 장기간의 전쟁으로 지배층의 내분이 일어나 왕검성이 함락되어 멸망하였다(B.C.108).(36)
3	선사	한군현의 소멸	고조선이 멸망하자 한은 고조선의 일부 지역에 군현을 설치하여 지배하고자 하였으나 토착민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그리하여 그 세력은 점차 약화되었고 결국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소멸되었다.(36)
4	선사	부여와 중국의 외교관계	부여는 이미 1세기 초에 왕호를 사용하였고,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는 등 발전된 국가의 모습을 보였다.(38)
5	고대	백제의 한군현 방어	백제는 한강 유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려던 한의 군현을 막아 내면서 성장하였다. 3세기 중엽 고이왕 때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중국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여 정치체제를

			정비하였다.(50)
6	고대	낙랑, 왜와의 중계무역	가야의 소국들은 일찍부터 벼농사를 짓는 등 농경 문화가 발달하였다. 또한 풍부한 철의 생산과 해상 교통을 이용하여 낙랑과 왜의 규슈 지방을 연결하는 중계 무역이 발달하였다.(51)
7	고대	고구려의 대외팽창	고구려는 3세기 중반 위나라의 침입을 받아 한때 위축되기도 하였으나 4세기에 이르러 5호 16국 시대의 혼란을 틈타 활발하게 대외 팽창을 꾀하였다. 미천왕 때에 낙랑군을 완전히 몰아낸 고구려는 압록강 중류 지역을 벗어나 남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아직 부족별로 흩어져 있던 힘을 조직적으로 통합하지 못하여 전연과 백제의 침략으로 국가적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52)
8	고대	고구려와 중국의 외교관계	그 후 장수왕 때에는 흥안령 일대의 초원 지대를 장악하는 한편 중국 남북조와 각각 교류하면서 대립하고 있던 두 세력을 조종하는 외교 정책을 써서 중국을 견제하였다.(53-54)
9	고대	백제와 중국의 교류	성왕은 중앙 관청과 지방 제도를 정비하고, 승려를 등용하여 불교를 진흥하였으며, 중국의 남조와 활발하게 교류하였다.(54)
10	고대	고구려와 수의 전쟁	6세기 말 남북조로 분열되었던 중국을 통일한 수는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당시 한반도에서 신라의 위협을 받던 고구려는 북쪽의 돌궐과 연결하고, 남으로 백제·왜와 연결하는 연합 세력을 구축하여 이에 대응하였다. 수의 압박으로 돌궐의 세력이 약화되자 위기 의식을 느낀 고구려는 먼저 중국의 요서 지방을 공격하였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수의 문제와 양제는 잇따라 백만 명이 넘는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고구려에 침략해 왔다. 고구려는 병력 규모는 작았으나 요하를 굳게 지켜 문제의 침략을 막아냈고, 양제의 침입 때에는 을지문덕이 적을 유인한 뒤 살수에서 크게 격파하여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이를 살수대첩이라한다.(58)

11	고대	고구려와 당의 전쟁	<p>수의 뒤를 이은 당은 건국 초에는 유화정책을 취했으나 곧이어 동북아시아 방면으로 세력을 뻗어 왔다. 이에 고구려는 국경 지방에 전리 장성을 쌓고, 방어 체제를 강화하는 등 당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특히, 연개소문은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권력을 상악하면서 대내적으로 독재 정치를 단행하고, 대외적으로는 당에 대하여 강경 정책을 추진하였다.</p> <p>이에 당의 태종은 직접 수십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요동의 여러 성을 공격하였다. 당의 군대는 요하를 건너 요동성, 개모성, 비사성 등을 빼앗고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안시성을 공격하였다. 안시성에서 군민이 합심하여 60여 일간이나 완강하게 저항하는 사이 전열을 정비한 고구려는 대대적인 반격을 펼쳐 마침내 당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다. 이후 고구려는 당의 빈번한 침략을 물리쳐 당의 동북아시아 지배 야욕을 좌절시켰다.</p> <p>고구려가 수·당과 싸워 이겨 그 침략을 막아 낸 것은 고구려의 국가 보위뿐만 아니라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침략을 저지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58)</p>
12	고대	나·당 연합군에 의한 백제의 멸망	<p>그러나 고구려의 반격을 우려하여 백제가 침략해 오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었다. 이에 신라는 고구려와 연합을 꾀했으나 성공하지 못하자 당과 군사 동맹을 맺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한반도를 통일하려 하였다. 고구려 침략에 실패한 당도 신라를 이용하여 한반도를 장악하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자연스럽게 나·당 연합군이 결성되었다.</p> <p>신라는 당과 연합하여 먼저 백제를 공격하였다. 김유신이 지휘한 신라군은 황산벌에서 계백이 이끈 백제의 결사대를 격파한 뒤 사비성으로 진출하였고, 당군은 금강 하구로 침입하였다. 이미 내부적으로 정치 질서의 문란과 지배층의 향락으로 국가적 일체감을 상실한 백제는 결국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멸망하고 말았다.</p> <p>백제 멸망 이후 각 지방의 저항 세력들은 백제 부흥 운동을 일으켰다. 복신과 흑치상지, 도침 등은 왕자 풍을 왕으</p>

			로 추대하고 주류성과 임존성을 기점으로 군사를 일으켰다. 이들은 200여 성을 회복하고 사비성과 웅진성의 당군을 공격하면서 4년간 저항하였으나 나당 연합군에 의하여 진압되었다. 이 때 왜의 수군이 백제 부흥군을 지원하기 위하여 백강 입구까지 왔으나 패하여 쫓겨갔다.(59)
13	고대	나당 연합군에 의한 고구려의 멸망	백제를 멸망시킨 신라는 다시 당과 연합하여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고구려는 거듭된 전쟁으로 국력의 소모가 심하였고, 요동 지방의 국경 방어선도 점차 무너졌다. 더구나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하여 민심이 떠나고 있었으며, 연개소문이 죽은 뒤 지배층의 권력 쟁탈전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있었다. 결국 동북아시아의 패자로 군림하던 고구려도 나당 연합군의 공격으로 멸망하였다.(58-59)
14	고대	나당 전쟁	당이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것은 결국 신라를 이용하여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려는 야심 때문이었다. 당은 백제의 옛 땅에 웅진 도독부를 두고, 고구려의 옛 땅에는 안동 도호부를 두어 지배하려 하였다. 또한 경주에도 계림 도독부를 두고 신라 귀족의 분열을 획책하여 한반도 전체에 대해 지배권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에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유민과 연합하여 당과 정면으로 대결하였다. 신라는 고구려 부흥 운동 세력을 후원하는 한편, 백제 땅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였다. 이어 남침해 오던 당의 20만 대군을 매소성에서 격파하여 나당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였고, 금강 하구의 기벌포에서 당의 수군을 섬멸하여 당의 세력을 완전히 몰아냈으며, 평양에 있던 안동 도호부도 요동성으로 밀어내는 데 성공함으로써 삼국 통일을 이룩하였다(676).(60)
15	중세	고려와 금과의 외교 관계	이자겸 세력은 대내적으로 문벌 중심의 질서를 유지하고 대외적으로 금과 타협하는 정치적 성향을 보였다.(80)
16	중세	거란의 1차 침입	10세기 초에 통일된 국가를 세운 거란(요)은 송을 공격하기에 앞서 송과 연결되어 있던 정안국을 토벌하고 고려와의 관계를 개선하려 하였다. 고려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p>않고 오히려 북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자 거란은 먼저 정안국을 징복한 다음 고려에 여러 차례 침입해 왔다.</p> <p>처음 거란은 80만의 대군으로 침입해 왔다(993). 거란은 고려가 차지하고 있는 고구려의 옛 땅을 내놓을 것과 송과 교류를 끊고 자신들과 교류할 것을 요구하였다. 고려는 청천강에서 거란의 침략을 저지하는 한편, 서희가 거란과 협상에 나섰다. 이 때 거란으로부터 고려가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인정받고 압록강 동쪽의 강동 6주를 확보하는 한편, 거란과 교류할 것을 약속하였다.(84)</p>
17	중세	거란의 2차 침입	<p>거란군이 퇴각한 뒤 고려는 송과 친선 관계를 유지하면서 거란과 교류하려 하지 않았다. 이에 거란은 강조의 정변을 계기로 강동 6주를 넘겨 줄 것을 요구하면서 40만 대군으로 다시 침입해 왔다. 이 때 개경이 함락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거란군의 뒤에서 양규가 선전하였다. 이에 거란군은 퇴로가 차단될 것을 두려워하여 고려와 강화하고 물러갔다.(84)</p>
18	중세	거란의 3차 침입	<p>여러 차례 소규모의 침입을 시도하던 거란은 다시 10만의 대군으로 침입해왔다. 개경 부근까지 침입해 온 거란은 도처에서 고려군의 저항을 받고 퇴각하던 중 귀주에서 강감찬이 지휘하는 고려군에게 섬멸되었다. 이 때 살아서 돌아간 거란의 군사가 수천에 불과할 정도였다. 이를 귀주대첩이라 한다.</p> <p>고려가 거란의 계속되는 침략을 막아내자 거란은 더 이상 고려를 공격할 수 없었고, 송을 침입할 수도 없었다. 결국 고려가 거란과 싸워서 승리함으로써 고려, 송, 거란 사이에는 세력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었다.</p> <p>전쟁이 끝난 뒤에 고려는 국방을 강화하는 데 더욱 노력하였다. 강감찬의 주장으로 개경에 나성을 쌓아 도성 수비를 강화하였고, 북쪽 국경 일대에 장성을 쌓아 거란은 물론 여진의 침입까지 방어하려 하였다. 이것이 압록강 어귀에서 동해안의 도련포에 이르는 천리 장성이다.(84-85)</p>
19	중세	여진정벌	<p>여진은 한때 말갈이라 불리면서 오랫동안 고구려에 복속되어 있었고, 말해가 멸망한 뒤에는 여진으로 불리면서 말해의 옛 땅에서 반독립적 상태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p>

		<p>고려는 두만강 연안의 여진을 경제적으로 도와주면서 회유동화 정책을 펴서 이들을 포섭해 나갔다. 그러나 12세기 초 만주 하얼빈 지방에서 일어난 완연부의 주장이 여진족을 통합하면서 정주까지 남하하여 고려와 충돌을 빚게 되었다.</p> <p>여진과의 일차 접촉에서 패한 고려는 기병 중심의 여진족을 보병만으로 상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윤관의 건의에 따라 기병을 보강한 특수 부대인 별무반을 편성하여 여진 정벌을 준비하였다. 윤관은 별무반을 이끌고 천리 장성을 넘어 여진족을 북방으로 쫓아 버리고, 동북 지방 일대에 9성을 쌓아 방어하였다.</p> <p>그러나 생활 터전을 잃은 여진족의 계속된 침입으로 9성 수비에 어려움을 겪던 고려는 다시는 침략하지 않고 해마다 조공을 바치겠다는 여진족의 조건을 수락하고 1년 만에 9성을 돌려주었다. 고려의 치지에서도 서북쪽의 거란족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여진 방어에만 힘쓸 수 없었기 때문에 여진의 조건을 받아들인 것이다.</p> <p>그 후 여진족은 더욱 강성해져 만주 일대를 장악하면서 국호를 금이라 하고, 거란을 멸한 뒤 고려에 군신 관계를 맺자고 압력을 가해 왔다. 고려는 그들의 사대 요구를 둘러싸고 정치적 분쟁을 겪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금과 무력 충돌을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결국 금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당시 집권자인 이자겸은 정권 유지를 위하여 금과 평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85)</p>
20	중세	<p>몽고의 침입</p> <p>13세기 초 중국 대륙의 정세는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부족 단위로 유복 생활을 하던 몽고족이 통일된 국가를 형성하면서 금을 공격하여 북중국을 점령하였다.</p> <p>이 때 금의 예하에 있던 거란족의 일부가 몽고에 쫓겨 고려로 침입해 왔다. 고려는 이들을 반격하여 강동성(평양 동쪽)에서 포위하였고, 거란족을 추격해 온 몽고 및 두만강 유역에 있던 동진국의 군대와 연합하여 거란족을 토벌</p>

		<p>하였다. 이후 몽고는 자신들이 거란족을 몰아내 준 은인이라고 내세우면서 지나친 공물을 요구해 왔다.</p> <p>마침 고려에 왔던 몽고 사신 일행이 귀국하던 길에 국경지대에서 피살되자 이를 구실로 몽고군이 침입해 왔다. 힘겹게 의주를 점령한 몽고군은 귀주성에서 박시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자 길을 돌려 개경을 포위하였다. 이에 고려는 몽고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몽고군도 큰 소득 없이 물러갔다.</p> <p>그러나 당시 집권자인 최우는 몽고의 무리한 조공 요구와 간섭에 반발하여 강화도로 도읍을 옮기고, 장기 항전을 위한 방비를 강화하였다. 이에 몽고가 다시 침입해 왔으나 처인성(경기 용인)에서 장수 살리타가 김윤후에게 사살되자 퇴각하고 말았다. 이후 고려는 여러 차례의 몽고 침략을 끈질기게 막아 냈다.</p> <p>강화도의 고려 정부는 주민들을 산성과 섬으로 피난시키고 항전과 외교를 병행하면서 저항하였다. 한편, 지배층들은 부처의 힘으로 외적을 방어하겠다는 마음으로 팔만대장경을 조판하였다. 그러나 고려가 몽고의 침입에 끈질기게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일반 민중들이 용감하게 대항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노비와 부곡 지역의 주민들까지도 몽고에 대항하여 싸웠다.</p> <p>강화도의 고려 정부는 수로를 통하여 조세를 걷어 들여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장기간의 전쟁으로 국토는 황폐해지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게 되었다. 아울러 황룡사 9층 목탑을 비롯한 수많은 문화재가 소실되었다.</p> <p>이에 고려 조정에서는 몽고와 강화를 맺으려는 주화파가 득세하여 최씨 정권이 무너지고 전쟁은 끝이 났다. 몽고가 고려와 강화를 맺고 고려의 주권과 고유한 풍속을 인정한다는 고리를 직속령으로 완전 정복하려던 계획을 포기한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고려의 끈질길 항전의 결과였다.</p> <p>그러나 고려 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하자 대몽 항쟁에 앞장섰던 삼별초는 배중손의 지휘 아래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장기 항전을 계획하고 진도로 옮겨 용장성을 쌓고 저항하</p>
--	--	---

			<p>었고, 여·몽 연합군의 공격으로 진도가 함락되자 다시 제주도로 가서 김통정의 지휘 아래 계속 항쟁하였다. 이처럼 삼별초의 장기적인 항쟁이 가능하였던 것은 몽고군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리적 이점과 몽고에 굴복하는 것에 반발하는 일반 민중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86-87)</p>
21	중세	원의 내정 간섭	<p>몽고와 강화한 이후 고려의 자주성은 많은 손상을 입었다. 고려는 먼저 몽고의 일본 원정에 동원되었다. 몽고는 국호를 원으로 바꾼 후 두 차례에 걸친 일본 원정을 단행하면서 고려로부터 선박, 식량, 무기를 비롯한 전쟁 물자와 함께 군대와 선원 등 인적 자원도 징발하였다. 오랜 전란에 시달린 고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었다.</p> <p>원은 고종 말년에 화주(영흥)에 쌍성총관부를 설치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직속령으로 편입하였으며, 자비령 이북의 땅을 차지하여 서경에 동녕부를 설치하였다. 또 삼별초의 항쟁을 진압한 뒤 제주도에 탐라총관부를 설치하고 목마장을 경영하였다. 동녕부와 탐라총관부는 충렬왕 때 다시 찾았으나 쌍성 총관부는 공민왕 때에 무력으로 회복할 때까지 원의 지배를 받았다.</p> <p>그러나 고려는 오랜 항쟁의 결과, 원에 정복당했거나 속국이 되었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원의 부마국이 되었다. 고려의 국왕은 원의 공주와 결혼하여 원 황제의 부마가 되었고, 왕실의 호칭과 격이 부마국에 걸맞은 것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관제도 개편되고 격도 낮아졌다.</p> <p>또 원은 일본 원정을 준비하기 위하여 설치했던 정동행성을 계속 유지하여 내정 간섭 기구로 삼았고, 군사적으로는 만호부를 설치하여 고려의 군사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루가치라는 감찰관을 파견하여 내정을 간섭하였다.</p> <p>한편, 원은 공녀라 하여 고려의 처녀들을 뽑아 갔으며, 금·은·베를 비롯하여 인삼·약재·매 등의 특산물을 징발하여 농민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또한 매를 징발하기 위해서 응방이라는 특수 기관을 설치하기도 하였다.</p> <p>이러한 원의 내정 간섭과 경제적인 수탈은 고려 사회에</p>

			<p>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우선 자주성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원의 압력과 친원파의 책동으로 인해 고려의 정치는 크게 왜곡되었다. 왕권이 원에 의지하여 유지됨은 물론 통치 질서가 무너져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88)</p>
22	중세	홍건적의 침입	<p>한편, 북쪽으로부터 홍건적이 침입해 와 공민왕이 복주(안동)까지 피난하기도 하였고, 남쪽에서는 왜구의 노략질이 계속되어 해안 지방을 황폐하게 하였다. 이에 고려는 적극적으로 남과 북의 외적에 대한 토벌 작전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최영과 이성계는 큰 전공을 올려 국민의 신망을 얻었다.(90)</p>
23	근세	조선과 명과의 관계	<p>조선은 건국 직후부터 명과 친선 관계를 유지하여 정권과 국가의 안전을 보장받고, 중국 이외의 주변 민족과는 교린 정책을 취하였다. 이러한 사대 교린 정책은 상대 국가가 달라지더라도 조선 전 시기에 걸쳐 일관되게 추진된 외교 정책이었다.</p> <p>명과는 태조 때 정도전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요동 정벌의 준비와 여진과의 관계를 둘러싸고 불편한 관계가 유지된 적도 있었지만, 태종 이후 양국간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문화 교류가 활발하였다.</p> <p>조선은 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대 정책을 견지하였으나 명의 구체적인 내정 간섭은 없었다. 매년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사절을 교환하였고 그 때 문화적 경제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사절 교환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것이었지만, 이를 통하여 중국의 앞선 문화의 수입과 물품의 교역이 이루어졌다.</p> <p>결국 명에 대한 사대 외교는 왕권의 안정과 국제적 지위 확보를 위한 자주적인 실리 외교였고, 선진 문물을 흡수하기 위한 문화 외교인 동시에 일종의 공무역이었다.(108)</p>
24	근세	조선과 여진과의 관계	<p>이후 여진에 대하여 조선은 회유와 토벌의 양면 정책을 취하였다. 조선은 여진족의 귀순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직을 주거나 정착을 위한 토지와 주택을 주어 우리 주민으로 동화시켰다. 또 사절의 왕래를 통한 무역을 허용하였고, 국경 지방인 경성과 경원에 무역소를 두고 국경 무역</p>

			<p>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린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진족은 자주 국경을 침입하여 약탈을 자행하였고, 이 때마다 조선에서는 군대를 동원하여 이들을 정벌하였다.</p> <p>한편, 여진족의 침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의 자치적 지역 방어 체제를 확립함과 동시에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는 정책도 마련하였다. 삼남 지방의 일부 주민들을 대거 북방으로 이주시켜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 지역을 개발하는 사민 정책을 실시하였고, 토착민을 토관으로 임명하여 민심을 수습하려 하였다.(108-109)</p>
25	근세	명에 원군 요청(임진왜란)	<p>일본은 전국 시대의 혼란을 수습한 뒤 철저한 준비 끝에 20만 대군으로 조선을 침략해 왔다(1592). 이를 임진왜란이라고 한다. 전쟁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조선은 전쟁 초기에 왜군을 효과적으로 막아 낼 수 없게 되자 선조는 의주로 피난하여 명에 원군을 요청하였다.</p> <p>수군과 의병의 승전으로 조선은 전쟁 초기의 수세에서 벗어나 반격을 시작하였다. 아울러 명의 원군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조명 연합군은 평양성을 탈환하였으며, 관군과 백성들이 합심하여 행주산성 등에서 적의 대규모 공격을 물리쳤다. 이에 왜군은 서울에서 후퇴하여 경상도 해안 일대에서 장기전에 대비하였다.</p> <p>3년여에 걸친 명과 일본 사이의 휴전 회담이 결렬되자 왜군이 다시 침입해 왔다. 이를 정유재란이라 한다. 그러나 조명 연합군이 왜군을 직산에서 격퇴하고 이순신이 적선을 명량에서 대파하자 왜군은 남해안 일대로 다시 후퇴하였다. 결국 전세가 불리해진 왜군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본국으로 철수하였다.(111-112)</p>
26	근세	여진족의 성장	<p>한편, 조선과 명이 일본과 싸우는 동안 북방의 여진족이 급속히 성장하여 동아시아의 정세가 크게 변화하였다.(113)</p>
27	근세	광해군의 중립 외교	<p>임진왜란을 겪는 동안에 조선과 명의 힘이 약화된 틈을 타서 압록강 북쪽에 살던 건주위 여진의 추장 누르하치가 부족을 통일하고 후금을 건국하였다(1616). 계속하여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던 후금은 명에 대하여 전쟁을 포고</p>

			<p>하였다. 이에 명은 후금을 공격하는 한편 조선에 원군을 요청하였다.</p> <p>광해군은 대내적으로 전쟁의 뒷수습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신중한 중립 외교 정책으로 대처하였다. 임진왜란 때 명의 도움을 받은 조선은 명의 후금 공격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고, 새롭게 성장하는 후금과 적대 관계를 맺을 수도 없었다.</p> <p>이에 광해군은 강홍립을 도원수로 삼아 1만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명을 지원하게 하되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고 상황에 따라 대처하도록 명령하였다. 결국 조·명 연합군은 후금군에게 패하였고 강홍립 등은 후금에 항복하였다. 이후에도 명의 원군 요청은 계속되었지만 광해군은 이를 적절히 거절하면서 후금과 친선을 피하는 중립적인 정책을 취하였다.(113)</p>
28	근세	정묘·병자호란	<p>인조 반정을 주도한 서인은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을 비판하고, 친명 배금 정책을 추진하여 후금을 자극하였다. 후금은 광해군을 위하여 보복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쳐들어와 평안도 의주를 거쳐 황해도 평산에 이르렀다. 이를 정묘호란이라고 한다.</p> <p>그 후 후금은 세력을 더욱 확장하여 국호를 청이라 고치고, 심양을 수도로 하였다. 군신 관계를 맺자는 청의 요구에 조선에서는 외교적 교섭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화론과 청의 요구에 굴복하지 말고 전쟁까지도 불사하자는 주전론이 대립하였다. 결국 대세가 주전론으로 기울자 청은 다시 대군을 이끌고 침입해 왔다. 이를 병자호란이라 한다.</p> <p>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난하여 청군에 대항했으나 결국 청에 굴복하고 말았다. 이로써 조선은 청과 군신 관계를 맺게 되었고, 두 왕자와 강경한 적화론자들이 인질로 잡혀갔다.</p> <p>청군의 침입은 왜군의 침입에 비하여 기간이 짧았고 지역적으로도 일부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피해가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청군이 기처간 서북 지방은 약탈과 살육에 의</p>

			하여 황폐해졌고, 무엇보다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컸다. 그동안 조선에 조공을 마쳐 왔고, 조선에서도 오랑캐로 여겨 왔던 여진족이 새운 나라에 기꾸로 군신 관계를 맺게 되고, 임금이 굴욕적인 항복을 했다는 사실은 조선인들에게 기다란 충격이었다. 이에 따라 청에 대한 적개심과 문화적인 우월감으로 인하여 북벌론이 제기되었다.(113-114)
29	근세	청과 군신 관계를 맺음	병자호란이 끝나고 청과 군신 관계를 맺은 조선은 겉으로는 청에 사대하는 형식의 외교를 추진했다. 그러나 내심으로는 은밀하게 국방에 힘을 기울이면서 청에 대한 북벌을 준비하였다. 효종은 청에 반대하는 입장을 강하게 내세웠던 송시열, 송준길, 이완 등을 증용하여 군대를 양성하고 성곽을 수리하는 등 북벌을 준비했다. 그 뒤 숙종 때에도 청의 정세 변화를 이용하여 윤희를 중심으로 북벌의 움직임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북벌을 실천에 옮기지는 못하였다.(115)
30	근세	병자호란 이후 조선과 청과의 관계	병자호란 이후 조선은 청에 대하여 표면상 사대 관계를 맺고 사신들이 왕래하면서 교역을 활발하게 하였다. 그러나 내심으로는 청에 대한 적개심이 오랫동안 남아 있어서 북벌 정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당시의 북벌론은 실현 가능성이 적었고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된 측면이 있었지만, 전란 후의 민심을 수습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 시기 청은 중국 대륙을 장악한 뒤 국력이 크게 신장되고, 중국의 전통 문화를 보호 장려하고 서양의 문물까지 받아들여 문화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다. 우리나라의 사신들은 귀국 후 기행문이나 보고서를 통하여 변화하는 청의 사정을 전하였고, 천리경, 자명종, 화포, 만국지도, 천주실의 등 여러 가지 새로운 문물을 소개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학자들 중에도 청을 무조건 배척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로운 것은 적극적으로 배우자는 북학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왔다.(130)
31	근대	청에	개항 이후 청과 일본이 조선에 대한 침략 경쟁을 벌이는

		사절단 파견	가운데 조선 정부는 부국강병을 목표로 개화파 인물을 등용하여 개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정부에서는 개화 정책을 전담하기 위한 기구인 통리기부아문을 두었고, 군사제도를 개혁하여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였으며, 일본과 청에 사절단을 보내 신식 문물을 배우게 하였다.(334)
32	근대	청의 내정간섭(임오군란)	개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임오군란이 일어났다. 그 결과 청의 내정 간섭과 정부의 친청 정책으로 인하여 개화 정책은 후퇴하였다.(334)
33	근대	청의 무력 간섭(갑신 정변)	이에 대한 반발로 급진 개화파들은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삼일천하로 끝난 이 정변은 개혁 주체의 세력 기반이 약했던 점, 외세에 의존하면서 정변의 방법으로 권력을 잡으려 하였던 점, 청의 무력 간섭 등으로 실패하였다. 그 결과 청의 내정 간섭이 더욱 심해졌고 개화 세력은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나 갑신정변은 근대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최초의 정치 개혁 운동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334)
34	근대	중국에 임시정부 수립	3·1운동을 계기로 독립을 선포한 우리 민족은 좀 더 조직적으로 독립 운동을 추진하고, 독립 전후의 국민 국가 건설을 준비하기 위하여 정부를 수립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한 노력으로 연해주의 대한 국민 의회, 국내의 한성정부, 중국 상하이의 대한 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 세 정부가 하나로 통합되어 상하이에서 대한 민국 임시 정부가 출범하였다.(345)
35	근대	만주에서 독립운동	한편, 만주에서 활동하던 독립군들은 통합을 피하여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으로 재편되었다. 독립군의 활동은 일제의 만주 침략으로 큰 위협을 받게 되었으나 곧 중국군과 연합하여 항일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투에서 승리하였다.(348)
36	근대	중국에서 독립운동	그 밖에도 중국의 화북 지방에서 중국 공산당과 연계하여 독립운동을 추진하던 사회주의 세력은 화북 조선 독립 동맹을 결성하고, 그 산하에 조선 의용군을 조직하여 항일전을 전개하였다.(348)
37	현대	중국과의	노태우 정부는 동구 공산주의 국가 및 소련, 중국과 외교

		국교 수립	관계를 수립하는 북방정책을 추진하여 성과를 올렸다.(353)
--	--	-------	-----------------------------------

2. 경제

순서	시대	주요내용	국사 교과서 본문의 서술 내용
1	선사	고조선의 중계무역	이 무렵 고조선은 사회와 경제의 발전을 기반으로 중앙 정치 조직을 갖춘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우세한 무력을 바탕으로 활발한 정복 사업을 전개하여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였다. 또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하여 동방의 예나 남방의 진이 직접 중국의 한과 교역하는 것을 막고, 중계 무역의 이득을 독점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군사적 발전을 기반으로 고조선은 한과 대립하였다.(36)
2	선사	변한의 철수출	특히, 변한에서는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 왜 등에 수출하였다. 철은 교역에서 화폐처럼 사용되기도 하였다.(42)
3	고대	삼국의 국제 무역	삼국의 국제 무역은 4세기 이후 크게 발달하였다. 고구려는 남북조 및 유목민인 북방민족과 무역을 하였다. 백제는 남중국 및 왜와 무역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신라는 한강 유역을 획득하기 이전에는 고구려와 백제를 통하여 중국과 무역을 하였으나, 한강 유역으로 진출한 이후에는 당항성을 통하여 직접 교역하게 되었다.(138)
4	고대	중국에서 비단 수입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볼 수 있듯이 귀족들은 기와집, 창고, 마구간, 우물, 주방 등을 갖추고 높은 담을 쌓은 집에서 살면서 풍족하고 화려한 생활을 하였다. 이들은 중국에서 수입된 비단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보석과 금으로 치장하였다.(139)
5	고대	신라와 당과의 무역	통일 후 당과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무역이 번성하였고, 공무역뿐 아니라 사무역도 발달하였다.(142)
6	고대	신라인 거주지	무역 확대로 산둥 반도와 양쯔 강 하류에 신라인의 거주지인 신라방, 신라인을 다스리는 신라소, 여관인 신라관, 절인 신라원이 만들어졌다.(142)
7	고대	당에서 사치품 수입	귀족들은 당이나 아라비아에서 수입한 비단, 양탄자, 유리그릇, 귀금속 등 사치품을 사용하였다. 당시 귀족들은 당의 유행을 따라 옷을 입을 정도였다.(143)
8	고대	발해와	발해는 당, 신라, 거란, 일본 등과 무역하였다. 이 때 사신

		당과의 무역	과 더불어 상인들이 동행하여 무역하였다. 당과는 해로와 육로를 이용하여 무역을 하였는데 당은 산둥 반도의 덩저우에 발해관을 설치하고 발해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였다. 발해의 수출품은 주로 모피, 인삼 등 토산물과 분상, 자기 등 수공업품이었다. 수입품은 귀족들의 수요품인 비단, 책 등이었다.(144)
9	중세	고려와 송,요와의 무역	통일 신라 시대부터 서해안의 호족들을 중심으로 발달했던 사무역이 고려에 들어와서는 국가의 통제를 받았다. 점차 중앙 집권화되면서 그동안 성행하였던 사무역은 쇠퇴하고 공무역이 중심이 되었다. 국내 상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면서 송, 요 등 외국과 무역도 활발해졌다.(155)
10	중세	고려와 송과의 무역	고려의 대외 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송과의 무역이었다. 고려는 서해안의 해로를 통하여 송으로부터 왕실과 귀족의 수요품을 수입하는 대신에 종이, 인삼 등 수공업품과 토산물을 수출하였다. 특히, 고려의 종지와 먹은 질이 뛰어나 송의 문인들이 귀하게 여겼으므로 비싼 값으로 수출되었다.(155-156)
11	중세	고려와 거란,여진과의 무역	거란과 여진은 은을 가지고 와서 농기구 식량 등과 바꾸어갔다.(156)
12	중세	고려와 원과의 무역	원의 간섭기에는 공무역이 행해지는 한편 사무역이 다시 활발해졌다. 상인들이 독자적으로 원과 교역하면서 금, 은, 소, 말 등이 지나치게 유출되어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날 정도였다.(156)
13	근세	조선과 명,여진과의 무역	조선은 기본적으로 주변 국가와의 무역을 통제하였다. 그러나 명과는 사신들이 왕래할 때 하는 공무역과 사무역을 허용하였다. 여진과는 국경 지역에 설치한 무역소를 통하여 교역하였고, 일본과는 동래에 설치한 왜관을 중심으로 무역하였다.(166-167)
14	근세	조선과 청과의 무역	국내 상업의 발달과 때를 같이하여 대외무역도 점차 활기를 띠었다. 17세기 중엽부터 청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공적으로 허용된 무역인 개시와 사적인 무역인 후시가 이루어졌다. 청에서 수입하는 물품은

			비단·약재·문방구들이었고, 수출하는 물품은 은·종이·무명·인삼 등이었다.(181)
15	근세	조선과 청과의 사무역	이러한 국제 무역에서 사적인 무역이 허용되면서 상인들이 무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들 중에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상인들은 의주의 송상과 동래의 내상이었으며, 개성의 송상은 양자를 중계하며 큰 이득을 남기기도 하였다. 특히, 의주의 반상은 대중국 무역을 주도하면서 제화를 많이 축적하였다.(182)
16	근대	일본, 청 상인으로 인한 국내 상업의 위축	임오군란 이후 일본 상인과 청나라 상인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내 상업은 더욱 위축되었다.(358)
17	현대	중국과의 무역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업은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무역 대상국도 미국과 일본 중심에서 벗어나 유럽, 동남아시아, 중국, 남미 등지로 다변화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형성하면서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경제의 한 축을 만들어 가고 있다.(364)

3. 사회

순서	시대	주요 내용	국사 교과서 본문의 서술 내용
1	선사	한군현 설치로 인한 사회 변화	한의 군현이 설치된 후 억압과 수탈을 당하던 토착민들은 이를 피하여 이주하거나 단결하여 한의 군현에 대항하였다. 이에 한의 군현은 엄한 율령을 시행하여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 하였다. 그에 따라 법 조항도 60여 조로 증가하였고 풍속도 각박해져 갔다.(37)
2	고대	선진문화 수용	백제는 일찍부터 중국과 교류하며 선진문화를 수용하였다. 백제 사람은 키가 크고 의복이 깔끔하다는 중국의 기록은 그 세련된 모습을 알려 준다.(190)
3	고대	당의 제도와 문화 수용	발해의 지식인은 당에 유학하여 당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거 시험인 빈공과에 응시하고, 때로는 신라인과 수석을 다투기도 하였다. 이렇게 발해는 상층 사회를 중심으로 당의 제도와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하층 촌락민들은 고구려나 말갈 사회의 전통적인 생활 모습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었다.(194)
4	중세	몽고 침입 이후의 사회 변화	<p>몽고의 침입에 대항하고자 최씨 무신 정권은 송악에서 강도(강화도)로 서울을 옮기고 장기 항전을 꾀하였다. 지방의 주현민들에게는 산성이나 바다의 섬으로 들어가서 오랜 전쟁에 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술은 산성과 섬에서의 생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되었으므로 일반 백성들은 몽고의 침략에 자력으로 맞서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p> <p>이렇게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일반 백성들이 각지에서 몽고군을 격퇴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충주 다인철소, 처인 부곡의 승리는 그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몽고군은 이르는 곳마다 살육을 자행하였으므로 백성들은 막대한 희생을 당하였고, 식량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여 굶어 죽는 일이 많았다.</p> <p>전쟁이 종료되어 원과 강화를 맺은 뒤에 원의 간섭과 원을 따르는 정치 세력에 의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일반 백성이었다. 특히, 전쟁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차례의 일본 원정에 동원됨으로써 막대한 희생</p>

			을 강요당하였다.(206-207)
5	중세	원 간섭기의 사회	<p>부신 집권기 이후로는 하층 신분에서 신분 상승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 특히, 원 간섭기 이후에 역관, 향리, 평민, 부곡민, 노비, 환관 중에서 전공을 세우거나 몽고 귀족과의 혼인을 통해서 또는 몽고어에 능숙하여 출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에 원 간섭기에는 친원 세력이 권문세족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p> <p>원과 강화를 맺은 이후 두 나라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사람과 물자의 왕래가 많아졌고, 문물 교류가 활발하였다. 이에 따라 고려 사회에는 몽고풍이 유행하여 변발, 몽고식 복장, 몽고어가 궁중과 지배층을 중심으로 널리 퍼졌다. 이와는 반대로 고려 사람이 몽고에 건너간 수도 적지 않았다. 이들은 전란 중에 포로 내지는 유이민으로 들어갔거나 몽고의 강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끌려간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이들 고려 사람들에 의하여 고려의 의복, 그릇, 음식 등의 풍습이 몽고에 전해졌다.</p> <p>원의 공녀 요구는 고려에 심각한 사회 문제를 가져왔다. 결혼도감을 통하여 원으로 끌려간 여인 중에는 특별한 지위에 오른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고통스럽게 살았다. 그러므로 공녀의 공출은 고려와 원 사이에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고려에서는 끊임없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다.</p> <p>몽고와 마찬가지로 왜구도 고려 백성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다. 왜구는 14세기 중반부터 침략해 왔다. 원의 간섭하에서 국방력을 제대로 갖추기 어려웠던 고려는 초기에 효과적으로 왜구의 침입을 격퇴하지 못하였다.(207-208)</p>
6	근세	청과의 외교 업무에 종사한 역관의 활동으로 인한	<p>중인 중에서도 역관들은 청과의 외교 업무에 종사하면서 서학을 비롯한 외래 문화 수용에 있어서 선구적 역할을 수행하여 성리학적 가치 체계에 도전하는 새로운 사회의 수립을 추구하였다. 이들 중간 계층의 활동은 농민의 움직임과 더불어 조선 후기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224)</p>

		사회변화	
7	근세	중국에서 천주교의 수용	천주교는 17세기에 중국 베이징의 천주당을 방문한 우리나라 사신들에 의하여 시학으로 소개되었다. 천주교가 신앙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18세기 후반경이었다. 당시 정치와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고심하던 남인 계열의 실학자들이 천주교 서적을 읽고 신앙 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이승훈이 베이징에서 시양인 신부에게서 영세를 받고 돌아온 이후로 신앙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233)
8	근대	중국에서 사회주의 사상 수용	1920년대에 들어와 사회주의 사상을 처음 받아들인 사람들은 러시아와 중국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 운동가들이었다.(372)

4. 문화

순서	시대	주요내용	국사 교과서 본문의 서술 내용
1	고대	한자의 수용	우리 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은 고대부터 한자 문화권을 형성하였으며, 우리 민족은 철기 시대부터 한자를 사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삼국시대의 지배층은 한자를 널리 쓰게 되면서 한문으로 쓰여진 중국의 유교, 불교, 도교의 서적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삼국 시대 사람들은 처음에는 한자를 그대로 사용하여 우리말을 썼으나 뒤에는 이두와 향찰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로써 한문의 토착화가 이루어져 갔으며 한문학이 널리 보급되어 갔다.(p.241)
2	고대	신라 유학생의 당에서의 활동	통일 이후 신라와 당의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당에 건너가 공부한 유학생들이 많아졌다. 그 중에서 이름난 인물은 신라 말기의 김운경, 최치원 등이었다. 특히, 최치원은 당에서 빈공과에 급제하고 문장가로 이름을 떨친 후 귀국하여 개혁안 10여 조를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42)
3	고대	불교의 수용	고구려는 중국의 전진을 통하여 소수림왕 때에 불교를 수용하였고(372), 백제는 동진에서 침류왕 때 불교를 받아들였다(384).(243)
4	고대	발해의 유학생 파견	발해에서도 당에 유학생을 파견하였고 그 중에는 당의 빈공과에 급제한 사람도 여러 명이 나왔다.(243)
5	고대	불교 교류	삼국 불교의 유산을 토대로 하고 중국과의 교류를 더하여 신라 불교는 다양하고 폭넓은 불교 사상을 본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쌓았다.(244)
6	고대	불교의 수용	신라 불교가 성숙해 가는 시기에도 많은 승려들은 중국에 가서 새로운 불교를 전수해 왔다. 중국을 넘어 인도에까지 가서 불교를 공부하고 오는 승려도 있었다.(245)
7	고대	풍수지리설의 수용	한편, 신라 말기의 도선과 같은 선종 승려들은 중국에서 유행한 풍수지리설을 들여왔다.(246)

8	고대	남조의 영향을 받은 벽돌무덤	용진 시기의 고분은 굴식 돌방 무덤 또는 널방을 벽돌로 쌓은 벽돌무덤으로 바뀌었다. 벽돌무덤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완전한 형태로 발견된 무령왕릉이 유명하다.(252)
9	고대	불상 제작법의 수용	삼국은 각기 중국에서 불상 제작법을 받아들이면서도 각각의 독창성을 발휘하였다. 고구려의 연가 7년명 금동 여래 입상은 두꺼운 의상과 긴 얼굴모습에서 북조 양식을 따르고 있으나 강인한 인상과 은은한 미소에는 고구려의 독창성이 보인다.(256)
10	고대	당의 발해자기 수입	발해에서는 자기 공예가 독특하게 발전하였다. 발해의 자기는 가볍고 광택이 있는데 그 종류나 크기, 모양, 색깔 등이 매우 다양하였다. 당시 당나라 사람들도 그 우수함을 인정하여 수입해 갔다고 한다.(257)
11	중세	성리학의 전래	고려후기에는 성리학이 전래되어 사상계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부분에 걸쳐 큰 영향을 주었다. 남송의 주희가 집대성한 성리학은 종래 자구의 해석에 힘쓰던 한-당의 훈고학이나 사장 중심의 유학과는 달리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 문제를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신유학이었다. 고려에 성리학을 처음 소개한 사람은 충렬왕 때 안향이었다. 그 후 백이징이 직접 원에 가서 성리학을 배워 와 이제현과 박충좌 등에게 전수하였다. 충선왕 때 이제현은 원의 수도에 설립된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였다.(267-268)
12	중세	속장경의 편찬	초조대장경이 만들어진 얼마 후에 의천은 고려는 물론 송과 요의 대장경에 대한 주석서를 모아 속장경을 편찬하였다.(271)
13	중세	종이의 중국 수출	당시 고려에서 만든 종이는 중국에 수출되어 호평을 받았다.(276)
14	중세	중국의 농서 도입	고려 후기에는 중국의 농서를 도입하여 이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암은 원의 농상집요를 소개 보급하였는데 이는 농업 기술에 대한 학문적 연구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공

			민왕 때 문익점이 원에서 목화씨를 들여왔으며, 이로써 목화 재배가 고려 말에 시작되어 의생활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277)
15	중세	화약 제조법의 터득	당시 중국에서는 화약 제조 기술을 비밀에 붙여서 고려에서는 이를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최무선의 끈질긴 노력으로 화약 제조법을 터득하게 되었다.(277)
16	중세	조선 기술의 발달	배를 만드는 기술도 발달하였다. 송과 해상 무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길이가 96척이나 되는 대형 범선이 제조되었다. 각 지방에서 징수한 조세미를 개경으로 운송하는 조운 체계가 확립되면서 1,000석의 곡물을 실을 수 있는 대형 조운선도 등장하였는데, 이는 주로 해안 지방의 조창에 배치되었다. 13세기 후반에는 원의 강요에 따라 일본 원정에 필요한 전함 수백 척을 짧은 기간에 건조하였는데, 이는 고려 시대의 조선 기술이 상당히 발달하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278)
17	중세	송의 자기 기술 수용	고려 자기는 신라와 발해의 전통과 기술을 토대로 송의 자기 기술을 받아들여 귀족 사회의 전성기인 11세기에 독자적인 경지를 개척하였다. 자기 중에서 가장 이름난 것은 비취색이 나는 청자인데, 중국인들도 천하의 명품으로 손꼽았다.(283)
18	중세	송에서 음악과 악기 수입	고려 시대의 음악은 크게 아악과 향악으로 구분된다. 아악은 송에서 수입된 대성악이 궁중 음악으로 발전된 것으로 오늘날까지도 격조 높은 전통 음악을 이루고 있다. 속악이라고도 하는 향악은 우리의 고유 음악이 당악의 영향을 받아 발달한 것인데, 당시 유행한 민중의 속요와 어울려 수많은 곡을 낳았다. 동동, 한림별곡, 대동강 등의 곡이 유명하였다. 악기는 전래의 우리 악기에 송의 악기가 수입되어 약 40여 종이나 되었다고 한다.(284-285)
19	근세	과학기술의 수용	우리나라의 전통적 문화를 계승하면서 서역과 중국의 과학 기술을 수용하여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298)
20	근세	역법의 수용	천문학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역법이 마련되었다. 세종 때 만든 칠정산은 중국의 수시력과 아라비아의 회회력을 참고

			로 하여 만든 역법서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서울을 기준으로 전체 운동을 정확하게 계산한 것이다. 이는 15세기 세계 과학의 첨단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298)
21	근세	농업 기술의 수용	세종 때 정초 등이 편찬한 농사직설은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최초의 농서로서 중국의 농업 기술을 수용하면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농법을 정리하였다.(299)
22	근세	명나라 백자의 영향	조선의 백자는 고려 백자의 전통을 잇고 명나라 백자의 영향을 받아 이전보다 질적인 발전을 이루었다.(305)
23	근세	중국 화풍의 수용	15세기 그림은 도화서에 소속된 화원들의 그림과 관료이자 문인이었던 선비들의 그림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중국 역대 화풍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소화하여 우리의 독자적인 화풍을 개발하였다.(305)
24	근세	양명학의 수용	성리학의 교조화와 형식화를 비판하며 실천성을 강조한 양명학은 이미 중종 때에 조선에 전래되었던 새로운 유학 사상이다. 이후 명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주로 서경덕 학파와 종친들 사이에서 점차 확산되어 갔다.(312)
25	근세	고증학의 영향을 받음	그 후 실학은 농업 중심의 개혁론,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 국학 연구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으며, 이 때 청에서 전해진 고증학과 서양 과학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313)
26	근세	청의 문물 수용 주장	18세기 후반에는 농업뿐만 아니라 상공업의 진흥과 기술의 혁신을 주장하는 실학자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서울의 노론 집안 출신이 대부분이었으며, 청나라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부국강병과 이용 후생에 힘쓰자고 주장하였으므로 이들을 이용 후생 학파 또는 북학파라고도 한다. 상공업 중심 개혁론의 선구자는 18세기 전반의 유수원이었다. 그는 우서를 저술하여 중국과 우리나라의 문물을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의 개혁안을 제시하였다.(314)
27	근세	북학파의 실학 사상	북학파의 실학 사상은 18세기 후반에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등에 의하여 크게 발전하였다. 노론 명문 출신인 홍대용은 청에 왕래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임하경륜, 의산문답 등을 저술하였다. 박지원은 청에 다녀와 열하일기를 저

			<p>술하고 상공업의 진흥을 강조하면서 수레와 선박의 이용, 화폐 유통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고 양반 문벌 제도의 비생산성을 비판하였다.</p> <p>박지원은 청에 다녀와 열하일기를 저술하고 상공업의 진흥을 강조하면서 수레와 선박의 이용, 화폐 유통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고 양반 문벌 제도의 비생산성을 비판하였다. 또한 농업에서도 영농 방법의 혁신, 상업적 농업의 장려, 수리 시설의 확충 등을 통하여 농업 생산력을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p> <p>박지원의 실학 사상은 그의 제자인 박제가에 의하여 더욱 확충되었다. 양반 집안의 서자로 태어난 박제는 청에 다녀온 후 북학의를 저술하여 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제창하였다. 그는 상공업의 발달, 청과의 통상 강화, 수레와 선박의 이용 등을 역설하였다.(315)</p>
28	근세	중국으로부터 서양식 지도의 전래	<p>중국으로부터 서양식 지도가 전해짐에 따라 정밀하고 과학적인 지도가 많이 제작되었고, 그 중에서도 정상기와 김정호가 만든 지도가 우수한 것으로 꼽히고 있다.(317)</p>
29	근세	중국을 통한 서양문물의 전래	<p>조선후기에는 전통적 과학 기술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중국을 통하여 전래된 서양의 과학 기술을 수용하여 과학 기술 면에서도 큰 진전이 있었다.</p> <p>서양문물은 17세기경부터 중국을 왕래하던 사신들을 통해서 들어왔다. 선조 때 이광정은 세계지도를, 인조 때 정두원은 화포·천리경·자명종 등을 전하였다. 당시 명·청의 수도에는 서양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조선의 사신들은 베이징에서 이들과 접촉하여 서양 문물을 소개받았다.(318)</p>
30	근세	중국을 통한 세계지도의 전래	<p>역법은 김육 등의 노력으로 시현력이 어렵게 도입되었다. 이는 서양 선교사인 아담 샬이 중심이 되어 만든 것으로 청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었는데 종전의 역법보다 한 걸음 더 발전한 것이었다. 조선에서는 약 60여 년간의 노력 끝에 시현력을 채용하였던 것이다.</p> <p>수학에서도 마테오 리치가 유클리드 기하학을 한문으로 번</p>

			<p>역한 기하원본이 도입되었다. 홍대용은 주해수용을 저술하여 우리나라, 중국, 서양 수학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였다. 서양 선교사들이 만든 곤여만국전도와 같은 세계 지도가 중국을 통하여 전해짐으로써 지리학에서도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지식을 가져게 되었고, 지도 제작에서도 더 정확한 지도가 만들어졌다. 이를 통하여 조선 사람들의 세계관이 확대될 수 있었다.(319)</p>
31	근세	중국에서 동의보감 간행	<p>조선 후기의 의학은 크게 발전하였다. 17세기 초에 허준은 동의보감을 저술하여 의학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 이 책은 우리의 전통 한의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간행되어 뛰어난 의학서로 인정되었다.(319)</p>

II. 영토 관련 기사

시대	내용
선사	우리 조상들은 대체로 중국 요령(랴오닝)성, 길림(지린)성을 포함하는 만주 지역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에 넓게 분포하여 살고 있었다. 우리나라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구석기 시대부터이며,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민족의 기틀이 이루어졌다.(21)
선사	청동기 시대의 유적은 중국의 요령성, 길림성 지방을 포함하는 만주 지역과 한반도에 걸쳐 널리 분포되어 있다.(29)
선사	이 시기의 대표적인 동검인 비파형 동검은 만주로부터 한반도 전역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다. 이와 같은 비파형 동검의 분포는 미송리식 토기 등과 함께 이 지역이 청동기 시대에 같은 문화권에 속하였음을 보여 준다.(29)
선사	고조선은 요령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점차 인접한 족장 사회들을 통합하면서 한반도까지 발전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비파형 동검과 고인들의 출토 분포로써 알 수 있다.(34)
선사	고조선은 요령 지방과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이룩하면서 발전하였다. 기원전 3세기경에는 부왕, 준왕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하였으며, 그 밑에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도 두었다. 또, 요서 지방을 경계로 하여 연나라와 대립할 만큼 강성하였다.(35)
선사	부여는 만주 길림시 일대를 중심으로 송화(송화)강 유역의 평야 지대를 중심으로 성장하였다.(38)
선사	고구려는 압록강의 지류인 동가강 유역의 졸본(환인) 지방에 자리 잡았다.(39)
선사	고구려는 건국 초기부터 주변의 소국들을 정복하고 평야 지대로 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압록강 가의 국내성(통구)으로 옮겨 5부족 연맹을 토대로 발전하였다. 그 후 활발한 정복 전쟁으로 한의 군현을 공략하여 요동 지방으로 진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쪽으로는 부전고원을 넘어 옥저를 정복하여 공물을 받았다.(39)
고대	졸본성에서 국내성으로 도읍을 옮긴 고구려는 1세기 후반 태조왕 때에 이르러 정복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49)
고대	정복활동을 통하여 축적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백제는 수군을 정

	비하여 중국의 요서 지방으로 진출하였고, 이어서 산둥 지방과 일본의 규슈 지방에까지 진출하는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벌였다.(52)
고대	고구려는 만주와 한반도에 걸친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정치 제도를 완비한 대제국을 형성하여 중국과 대등한 지위에서 힘을 겨루게 되었다.(54)
고대	고구려 멸망 이후 대동강 이북과 요동 지방의 고구려 땅은 당의 안동 도호부가 지배하고 있었다. 고구려 유민들은 요동 지방을 중심으로 당에 대한 저항을 계속하였다. 당은 이 지역의 고구려 유민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하여 당에 포로로 잡혀 있던 보장왕을 요동 도독으로 임명하는 회유책을 쓰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의 이러한 민족 분열 정책은 오히려 고구려 유민들의 동족 의식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7세기 말에 이르러 당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자, 고구려 장군 출신인 대조영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 유민과 말갈 집단들은 전쟁의 피해를 거의 받지 않았던 만주 동부 지역으로 이동하여 길림성의 돈화시 동모산 기슭에 발해를 세웠다(698). 발해의 건국으로 이제 남쪽의 신라와 북쪽의 발해가 공존하는 남북국의 형세를 이루게 되었다.(62)
고대	대조영의 뒤를 이은 무왕 때에는 영토 확장에 힘을 기울여 동북방의 여러 세력을 복속하고 북만주 일대를 장악하였다. 발해의 세력 확대에 따라 신라는 북방 경계를 강화하였고 흑수부 말갈도 당과 연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발해는 먼저 장문휴의 수군으로 당의 산둥 지방을 공격하는 한편, 요서 지역에서 당군과 격돌하였다. 돌궐·일본 등과 연결하면서 당과 신라를 견제하여 동북아시아에서 세력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62)
고대	그러나 10세기 초에 이르러 부족을 통일한 거란이 동쪽으로 세력을 크게 확대해 오고, 발해 내부에서 귀족들의 권력 투쟁이 격화되어 발해의 국력은 크게 쇠퇴하였다. 결국 23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오던 발해는 거란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였다(926). 이후 발해 유민들의 부흥 운동마저 실패함으로써 그동안 우리 민족의 주된 활동 무대의 일부였던 만주 지방에 대한 지배력이 급격히 약화되었다.(63)
중세	또한 부력으로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였으며, 더 나아가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하여 요동 지방을 공략하였다.(89)
중세	마침 명이 철령 이북의 땅을 차지하려 하자 최영은 이성계를 시켜 요동 정벌을 단행하였다.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회군하여(1388) 최영을 제거한

	뒤, 군사적 실권을 장악하여 본격적인 개혁의 계기를 마련하였다.(91)
근세	조선은 영토의 확보와 국경 지방의 안정을 위하여 여진에 대하여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펴 나갔다. 우선 태조에 의하여 일찍부터 두만강 지역이 개척되었다. 이어 세종 때에는 4군과 6진을 설치하여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오늘날과 같은 국경선을 확정하였다.(108)
근대	한편, 청은 중국 대륙을 차지한 후에도 그들의 본거지였던 만주 지방에 관심을 기울여 이 지역을 성역화하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부가 두만강을 건너 인삼을 캐거나 사냥을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청과 국경 분쟁이 일어났다. 이에 조선과 청의 두 나라 대표가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 국경을 확정하여 정계비를 세웠다. 이 정계비에서 양국 간의 국경은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19세기에 이르러 토문강의 위치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 때문에 두 나라 사이에 간도 귀속 문제가 발생하였다. 결국 간도는 우리가 불법적으로 외교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간도 협약에 따라 청의 영토로 귀속되고 말았다.(130)